정답과 해설

1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본문 9~11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가)는 (나)에 비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고 유통 범위도 좁다.
(2) (가)는 (나)와 달리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제공하기가 어렵다.
(3) (가)는 (나)와 달리 다른 매체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매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상호 연결성이 약하다.

02 [A]: 영상
[B]: 선호, 공유, 저장
[C]: 연결
[D]: 문자, 수용자

01 매체의 유형

(가)는 전통적인 종이 신문으로, (나)와 같은 인터넷 신문에 비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고 유통 범위도 좁다. 또한 종이 신문은 인터넷 신문과 달리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종이 신문은 인터넷 신문과 달리 다른 매체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매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상호 연결성이 약한 편이다.

02 매체의 유형

[A]로 볼 때, 인터넷 신문은 영상 자료를 삽입할 수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B]에 있는 '좋아요' 기능을 활용하면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고, 'SNS에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기사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스크랩' 기능을 활용하면 기사 내용과 기사가 수록된 웹 주소를 저장해 둘 수 있다.
[C]의 기능(하이퍼링크)을 활용하면 기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사와 연결되어,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D]의 댓글에는 문자 언어를 이용해 기사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❶ 음운

본문 15~16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최소 대립쌍이 되는 이유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음운
(1)	초성 'ㅈ'과 'ㅉ'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ㅈ'과 'ㅉ'
(2)	중성 'ㅏ'와 'ㅗ'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ㅏ'와 'ㅗ'
(3)	종성 'ㅂ'과 'ㄱ'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ㅂ'과 'ㄱ'

02

	조음 위치가 바뀜.	조음 방법이 바뀜.
(1)	아니요	예
(2)	예	예
(3)	아니요	예

03 홑이불[혼니불], 짓밟히다[짇빨피다]

01 최소 대립쌍

'자다[자다]'와 '짜다[짜다]'는 '자'의 초성 'ㅈ'과 '짜'의 초성 'ㅉ'의 차이로 인해, '가을[가을]'과 '고을[고을]'은 '가'의 중성 'ㅏ'와 '고'의 중성 'ㅗ'의 차이로 인해, '밥[밥]'과 '박[박]'은 종성 'ㅂ'과 종성 'ㄱ'의 차이로 인해 뜻이 각각 다른 단어가 되었다.

02 교체

(1) '국물[궁물]'은, 연구개음이면서 파열음인 'ㄱ'이 이어지는 음절의 비음 'ㅁ'을 만나 연구개음이면서 비음인 'ㅇ'으로 바뀌었다.
(2) '굳이[구지]'는, 치조음이면서 파열음인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이면서 파찰음인 'ㅈ'으로 바뀌었다. 이 현상은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ㄷ'이 'ㅈ'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3) '칼날[칼랄]'은, 치조음이면서 비음인 'ㄴ'이 앞선 음절의 유음 'ㄹ'을 만나 치조음이면서 유음인 'ㄹ'로 바뀌었다.

03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앞마당[암마당]'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홑이불[혼니불]'은 교체, 첨가, 교체가 일어났다. '닭다[담:따]'는 탈락, 교체가 일어났다. '짓밟히다[짇빨피다]'는 교체, 교체, 축약이 일어났다.

❷ 단어

본문 23~24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형태소 단위	가을, 하늘, 에, 검-, -은, 비, 구름, 이, 잔뜩, 끼-, -었-, -다

(2)

자립 형태소	ⓐ, ⓓ	실질 형태소	ⓐ, ⓒ, ⓓ
의존 형태소	ⓑ, ⓒ, ⓔ	형식 형태소	ⓑ, ⓔ

02

	직접 구성 요소 분석	합성어/파생어 판단
(1)	어근 '논'과 어근 '밭'으로 분석됨.	합성어
(2)	접사 '헛-'과 어근 '기침'으로 분석됨.	파생어
(3)	어근 '웃-'과 접사 '-음'으로 분석됨.	파생어
(4)	어근 '덮-'과 어근 '밥'으로 분석됨.	합성어

03 (1) garak (2) gulbap
(3) Ulleungdo (4) Wolgot

01 형태소의 종류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가을', '하늘', '에', '검-', '-은', '비', '구름', '이', '잔뜩', '끼-', '-었-', '-다'로 나눌 수 있다.

02 단어의 분류

'논밭'은 어근 '논'과 어근 '밭'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헛기침'은 접사 '헛-'이 어근 '기침'에 결합한 파생어이다. '웃음'은 어근 '웃-'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덮밥'은 어근 '덮-'과 어근 '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3 로마자 표기법

(1)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어말에서는 'k'로 적어야 하므로 'garak'이 올바른 표기이다.
(2) 'ㄹ'은 어말에서 'l'로 적어야 하고, 'ㅂ'은 어말에서 'p'로 적어야 하므로 'gulbap'이 올바른 표기이다.
(3) 'ㄹㄹ'은 'll'로 적어야 하므로 'Ulleungdo'가 올바른 표기이다.
(4)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적어야 한다. 또한 '월곶'은 표준 발음인 [월곧]에 따라 어말의 'ㄷ'을 't'로 적어야 하므로 'Wolgot'이 올바른 표기이다.

❸ 문장

본문 31~32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명사가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다.
(2) 동사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고, 조사와의 결합 없이 목적어로 쓰였다.
(3) 수사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4)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보어로 쓰였다.

02

문장	안긴절의 종류	안긴절의 기능
㉠	서술절	서술어의 기능
㉡	부사절	부사어의 기능
㉢	관형사절	관형어의 기능
㉣	명사절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

03 ㉠: 객체를 높이는 용언 '모시다' 사용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사용
㉢: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ㄹ' 사용
㉣: 하셨어

01 품사, 문장 성분

(1) '후보지이다'는 명사 '후보지'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다.
(2) '내닫기'는 동사 어간 '내닫-'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형태로, 조사와 결합 없이 목적어로 쓰였다.
(3) '셋으로'는 수사 '셋'에 조사 '으로'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4) '어른'은 명사 '어른'이 조사와 결합 없이 '돼서'의 보어로 쓰였다.

02 안은문장

㉠에서는 서술절 '값이 너무 비싸다'가 서술어의 기능을, ㉡에서는 부사절 '이가 시리게'가 부사어의 기능을, ㉢에서는 관형사절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에서는 명사절 '혼자 다니기'에 조사 '를'이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03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가)에서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용언 '모시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을 사용하였다. (나)에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였다.

❹ 담화/국어사

본문 38~39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	㉡	㉢	㉣
수진, 민지	수진, 가은	수진, 가은	수진

02

㉠	아ᅀᅮᆸ고, 어드ᄫᅳᆫ
㉡	ᄠᅳ들
㉢	수ᄫᆞᆺ, 부텻
㉣	길히, 길헤

03

제1단계 변화의 사례	제2단계 변화의 사례
ⓐ, ⓒ, ⓕ	ⓑ, ⓔ

01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 맥락으로 보아 ㉠의 '우리'는 '수진'과 '민지', ㉡의 '너희'는 '수진'과 '가은', ㉢의 '우리'는 '수진'과 '가은', ㉣의 '너희'는 '수진'을 가리킨다.

02 중세 국어 자료 탐구

㉠ '아ᅀᅮᆸ고'에서 'ㅿ'을, '어드ᄫᅳᆫ'에서 'ㅱ'을 확인할 수 있다.
㉡ 'ᄠᅳ들'에서 어두 자음군 'ㅺ'을 확인할 수 있다.
㉢ '수ᄫᆞᆺ'은 무정 체언 '수플'에, '부텻'은 존칭의 대상이 되는 '부텨'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이다.
㉣ '길히'는 '긿'에 주격 조사가, '길헤'는 '긿'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03 음운의 변천

ⓐ, ⓒ, ⓕ는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ㅡ'로 변화하였으므로 제1단계 변화에 해당하고, ⓑ, ⓔ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하였으므로 제2단계 변화에 해당한다. ⓓ는 둘째 음절에 있는 'ㆍ'가 'ㅏ'로 변화하였다. 〈보기〉에 의하면 둘째 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화하는 것이 '제1단계 변화'이므로, ⓓ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강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본문 44~46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복합 양식성
02 카메라
03 창의적
04 ○, ○, ○, ×, ○, ○

01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인간은 과거 오랫동안 음성 혹은 문자라는 단일 양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이를 전달하였다. 인쇄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게 되었지만 이때도 주로 문자라는 단일 양식만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전자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소리,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체 자료의 특성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한다.

02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영화 매체 특유의 심미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성장하게 된 학생들의 모습을 특정 구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관객들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다 문학적으로 체험하면서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 특정 구도는 서 있는 학생들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인데, 이는 영화 매체에서 사용되는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나사못은 완전히 조여야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사못을 완전히 조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를 강조하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동화 「피노키오」의 주인공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설정을 패러디하여, 나사못이 조여지지 않아서 튀어나온 상태인데도 안전하다고 한 것을 거짓말을 한 상황과 연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광고는 안전이라는 진부한 내용을 동화와 연결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04 매체 자료의 생산

정보 과목의 과제로, 인공 지능 윤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

해 영상물을 만들자고 했으므로 영상물 제작 목적을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물을 볼 사람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정하자.'에서 영상물의 예상 수용자를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중심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면 어떨까?'에서 영상물 수용자의 관심 분야를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물의 분량에도 한계가 있으니 다 담을 수도 없을 것이고.'에서 영상물의 분량을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공 지능 윤리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인공 지능 윤리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거야.'에서 영상물의 기대 효과를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물을 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인원과 시간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능 감(感)잡기

감을 잡으면 수능이 두렵지 않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본문 48~49쪽

문제로 이해하기 | 예시 답안

01 ㄷ, ㄹ, ㅁ

02 ㉠을 해결하기 위해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광고성 글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게시판 상단에 공지하였다.

01 매체 소통의 특성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의 소통도 의사소통의 일종이므로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 과도한 줄임말, 은어, 한글 파괴형 표현 등은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ㄷ). 그리고 읽기 권한을 얻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가 소통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ㄹ). 또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려면 자료가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ㅁ).
반면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의 의사소통은 각자 자신이 편한 공간과 시간에 하는 것이므로 같은 공간과 동일한 시간에 소통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ㄱ). 또한 의사 표현을 독점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화 참여자와 순서를 한 사람씩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도록 해야 한다는 순서 교대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며 소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ㄴ).

02 매체 언어의 표현

(나)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라는 공지 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현우'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도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리에 어긋나거나 광고성 글은 삭제 처리 예정'이라는 공지 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현우'는 ㉡(윤리에 어긋나는 글과 광고성 글들이 생기는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광고성 글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01 언어

본문 52~56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③

01 최소 대립쌍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마'와 '치마'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분절 음운의 개수가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이마'는 'ㅣ', 'ㅁ', 'ㅏ'라는 3개의 음운으로, '치마'는 'ㅊ', 'ㅣ', 'ㅁ', 'ㅏ'라는 4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눈(目)[눈]'과 '눈(雪)[눈:]'은 비분절 음운인 장단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② '마리'와 '머리'는 하나의 모음인 'ㅏ'과 'ㅓ'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④ '하루'와 '나라'는 'ㅎ'과 'ㄴ', 'ㅜ'와 'ㅏ' 두 개의 음운이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⑤ '키'와 '아이'는 'ㅋ'과 'ㅏ'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여 대응하는 음운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02 음운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끝으로[끄트로]'는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모음, 자음+모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 '쌓임에[싸이메]'는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모음+자음, 모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 모음, 자음+모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종이에[종이에]'는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모음, 모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도 '자음+모음+자음, 모음, 모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갈치를[갈치를]'은 표기 형태의 음절 유형은 '자음+모음+자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이고,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도 '자음+모음+자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이어서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일치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03 국어의 자음 체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ㄱ, ㄲ, ㅇ, ㅋ}, {ㄴ, ㄷ, ㄸ, ㄹ, ㅅ, ㅆ, ㅌ}, {ㅁ, ㅂ, ㅃ, ㅍ}, {ㅈ, ㅉ, ㅊ}, {ㅎ}은 차례대로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후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으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에 해당한다. 가령 연구개음 {ㄱ, ㄲ, ㅇ, ㅋ} 내에 파열음과 비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준'은 국어의 19개 자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음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묶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ㄴ, ㄹ, ㅁ, ㅇ}은 각각 장애음과 공명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ㅎ}과 {ㄴ, ㄹ, ㅁ, ㅇ}은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여 있지 않으므로, '보람'이 국어의 19개 자음을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③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ㅉ}, {ㅋ, ㅌ, ㅍ, ㅊ}은 차례대로 파열음, 파찰음들 중 평음, 경음, 격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ㅉ}, {ㅋ, ㅌ, ㅍ, ㅊ}은 모두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자음에 해당하므로, '수지'가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한 자음을 대상으로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④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ㅌ, ㅍ}, {ㅈ, ㅉ, ㅊ}, {ㅅ, ㅆ, ㅎ}은 차례대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으로, 가령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ㅌ, ㅍ} 내에 조음 위치가 다른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경'이 같은 조음 위치를 지니는 것끼리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⑤ {ㄴ, ㅁ, ㅇ}, {ㄹ}은 각각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ㄴ, ㅁ, ㅇ}, {ㄹ}은 파열음, 파찰음들 중 평음, 경음, 격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 아니고 조음 방법을 적용하여 묶은 것이므로, '혁준'이 조음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04 국어의 모음 체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ㅖ'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ㅚ'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고모음인 'ㅡ'를 발음할 때보다 저모음인 'ㅏ'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입이 보다 많이 벌어진다.

② 전설 모음인 'ㅚ'에서 후설 모음인 'ㅗ'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인 경구개 부근에서 뒤쪽인 연구개 부근으로 옮겨 간다.
④ 중모음인 'ㅓ'와 'ㅗ'를 발음할 때는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는 낮고 저모음보다는 높다.
⑤ 후설 원순 고모음인 'ㅜ'는 전설 평순 저모음인 'ㅐ'와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고 후설 원순 중모음인 'ㅗ'와는 혀의 높낮이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ㅜ'와 'ㅐ'보다는 'ㅜ'와 'ㅗ'가 더 가까운 관계이다.

05 탈락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ㅋ- + -□서 → [커서]'는 용언 어간 'ㅋ-' 끝의 'ㅡ'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ㅡ' 탈락의 예이다. '나서- + -□도 → [나서도]'는 용언 어간 '나서-' 끝 모음 'ㅓ'와 어미의 첫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의 예이다. '견디- + -□야 → [견뎌야]'는 용언 어간 '견디-'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견디-'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이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음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ㅓ'이다.

06 교체, 탈락, 첨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용언 어간 '싸우-' 끝의 'ㅜ'가 어미 '-어야' 앞에서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이고, [싸우어야]의 4음절이 [싸워야]의 3음절이 된 것에서 음절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용언 어간 '담그-' 끝의 'ㅡ'가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용언 어간의 끝 모음은 'ㅏ'가 아니라 'ㅡ'이므로, 동일 모음 탈락으로 볼 수 없다.
② ㉡은 용언 어간 '보이-'와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용언 어간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된 것이고, 음절 수는 줄어들었다.
④ ㉣은 용언 어간 '피-'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여]로 발음된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⑤ ㉤은 용언 어간 '아니-'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요]로 발음된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02 언어

본문 57~60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②
05 ② 06 ⑤

01 교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같이'는 '같-'의 'ㅌ'이 접사 '-이'의 'ㅣ'와 결합하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가치]로 발음해야 한다.
ⓒ: '닫힌'은 '닫-'의 'ㄷ'이 접사 '-히-'의 'ㅣ'와 결합하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다친]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버티지(버티- + -지)'의 '티'는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한 것이 아니고 어간의 일부이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이 아니다.
ⓓ: '끝인사(끝 + 인사)'의 '인사'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이 아니다.

02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읽고[일꼬]'는 교체(경음화) 및 탈락(자음군 단순화)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으나, '옮는[옴:는]'은 탈락(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고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붙임[부침]'은 교체(구개음화)가 한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② '벽난로[병날로]'는 교체(비음화, 유음화)가 두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③ '닭하고[다카고]'는 탈락(자음군 단순화) 및 축약(격음화)이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두 개 줄었다.
⑤ '늦여름[는녀름]'은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및 첨가('ㄴ' 첨가)가, '막일[망닐]'은 교체(비음화) 및 첨가('ㄴ' 첨가)가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각각 한 개 늘었다.

03 교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닫는[단는]'은 선행하는 'ㄷ'이 조음 위치(치조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ㄴ]이 되는 것을, '밥 먹는다[밤멍는다]'는 선행하는 'ㅂ'이 조음 위치(양순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ㅁ]이 되는 것과 선행하는 'ㄱ'이 조음 위치(연구개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ㅇ]이 되는 것을, '신라[실라]'는 선행하는 'ㄴ'이 조음 위치(치조음)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만 유음으로 바뀐 [ㄹ]이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후행하는 자음이 아니라 선행하는 자음이, 조음 방법은 바뀌고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③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으며, 선행하는 자음은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만 바뀐다.

④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 모두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⑤ 후행하는 자음이 아니라,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이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과 같아진다.

04 교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묶자'가 [묵짜]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하나의 자음인 'ㄲ'이 'ㄱ'으로 바뀐 결과로,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과 관련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삶'이 [삼:]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라는 제약과 관련된다.

③ '갚다'가 [갑따]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자음인 'ㅍ'이 'ㅂ'으로 바뀐 결과로,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과 관련된다.

④ '빚다가'가 [빋따가]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자음인 'ㅈ'이 'ㄷ'으로 바뀐 결과로,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과 관련된다.

⑤ '읊고'가 [읍꼬]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 'ㅍ'은 'ㅂ'으로 바뀐 결과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라는 제약과 음절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만 올 수 있는 제약 모두와 관련된다.

05 교체, 탈락, 축약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쌓는[싼는]'은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의 예이다. '싫어[시러]'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이다. '닳지[달치]'는 'ㅎ' 뒤에 'ㅈ'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ㅊ]으로 발음되는 ㉢의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닳아[다라]', '많아[마:나]', '낳은[나은]'은 모두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해당한다.

③ '낳아[나아]'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쌓지[싸치]'와 '좋던[조:턴]'는 'ㅎ' 뒤에 'ㅈ', 'ㄷ'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ㅊ], [ㅌ]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해당한다.

④ '않은[아는]', '곪아[고라]'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 '-아'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않고[안코]'는 'ㅎ' 뒤에 'ㄱ'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ㅋ]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해당한다.

⑤ '좋네[존:네]'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많고[만:코]'는 'ㅎ' 뒤에 'ㄱ'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ㅋ]으로 발음되는 ㉢의 예에, '쌓인[싸인]'은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 'ㅎ'이 발음되지 않는 ㉡의 예에 해당한다.

06 국어의 모음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4'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와 조사 '의'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의 첫음절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의 '의'에 해당하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로, '의사의'의 표준 발음은 [의사의/의사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4항의 [붙임]을 통해 '기회'의 'ㅚ'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기회'의 표준 발음은 [기회/기훼]이다.

② 제5항의 '다만 1'을 통해 용언의 활용형 '가져'의 '져'는 [저]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제5항의 '다만 2'를 통해 '예의'의 '예'는 [에]가 아니라 [예]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제5항의 '다만 3'을 통해 '희망'의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히]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언어

본문 61~64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① 05 ③ 06 ②

01 형태소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살-'과 '있-'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이며,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실질 형태소는 '오늘, 꽃, 잎, 날-' 4개이고, 형식 형태소는 '은, 이, 휘-, -리-, -었-, -다' 6개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가)의 '휘날렸다'는 '휘-', '날-', '-리-', '-었-', '-다'로 분석되며 이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자립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나)의 '-다가', '-면'은 연결 어미, '-ㄹ'은 관형사형 어미, '-다'는 종결 어미이고, 이들 모두 어미이므로 이들이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다)에는 자립 형태소 '그, 곳, 아직' 3개와 실질 형태소 '그, 곳, 아직, 많-, 춥-' 5개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2 단어의 분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장대높이뛰기'의 직접 구성 요소는 '장대', '높이뛰기'이다. 따라서 직접 구성 요소를 '장대높이'와 '뛰기'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눈높이'는 어근 '눈'과 어근 '높이(높- + -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팥죽집'은 어근 '팥죽(팥 + 죽)'과 어근 '집'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미닫이'는 어근 '미닫-(밀- + 닫-)'과 접미사 '-이'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겉넓이'는 어근 '겉'과 어근 '넓이(넓- + -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03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잠꾸러기'와 '욕심꾸러기'는 모두 명사이며, 어근인 '잠'과 '욕심'도 역시 명사이다. 따라서 어근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하면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저고리'는 명사이고 '대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접두사 '덧-'이 명사와 동사에 모두 결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군말'은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라는 뜻이고, '군살'은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 따위 때문에 찐 군더더기 살' 혹은 '현데에 두드러지게 내민 군더더기 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접두사 '군-'이 어근에 '쓸데없는'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더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늦추다'는 '늦다'에 '-추-'를 결합하여 사동적 의미를 더한 것이고, '낮추다'는 '낮다'에 '-추-'를 결합하여 사동적 의미를 더한 것이므로 '-추-'가 어근 '늦-'과 '낮-'에 사동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과일'은 명사이고, '디디다'는 동사이다. '풋-'과 '헛-'이 결합한 '풋과일'도 명사이고, '헛디디다'도 동사이므로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곧잘'은 부사 '곧'과 부사 '잘'이 결합한 형태인데, 우리말 문장에서 부사와 부사가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은 일반적이므로 '곧잘'은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새신랑'은 관형사 '새'와 명사 '신랑'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덮밥'은 용언의 어간 '덮-'과 명사 '밥'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이른바'는 용언의 관형사형 '이른'과 명사 '바'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굶주리다'는 용언의 어간 '굶-'과 용언의 어간 '주리-'에 어미 '-다'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5 형태소의 개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여서'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교체되는 음운론적 이형태가 아니라 '하-'로 시작하는 어간 뒤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서'와 '-아서'는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목적격 조사이고 '를'은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목적격 조사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② '-았-'은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ㅗ'일 때 쓰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었-'은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ㅗ'를 제외한 모음일 때 쓰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④ '와'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부사격 조사이고 '과'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⑤ '-아라'는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ㅗ'일 때 쓰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고 '-어라'는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ㅗ'를 제외한 모음일 때 쓰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06 단어의 분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는 단일어에 해당하는 '구름, 하늘, 나비, 나무'가 들어갈 수 있고, (나)에는 합성어에 해당하는 '돌다리, 논밭, 곳곳, 하얀색'이 들어갈 수 있다. (다)에는 접두사가 결합한 '민무늬, 맨손, 군식구'가 들어갈 수 있고, (라)에는 접미사가 결합한 '정답다, 슬기롭다, 놀이, 넓이'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가)~(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하늘, 논밭, 맨손, 정답다'이다.

04 언어

본문 65~68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1 품사의 개념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그는 공을 차고 있다.'의 '차다'는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의 '차다'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두 단어의 형태가 같고 품사가 달라 품사의 통용 사례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 두 단어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품사의 통용 사례가 아니라 동음이의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사과 다섯 개를 샀다.'의 '다섯'은 수 관형사이고,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의 '다섯'은 수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주는 만큼 받는다.'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이건 정말이야.'의 '정말'은 명사이고,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다.'의 '정말'은 부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형이 동생보다 발이 더 크다.'의 '크다'는 형용사이고,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의 '크다'는 동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2 용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푸다'가 '퍼'와 같이 활용한 것은 어간의 '푸-'에서 'ㅜ'가 탈락한 것이므로 어미의 형태가 변한 불규칙 용언이 아니라 어간의 형태가 변한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짓다'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므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② '묻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④ '뽑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⑤ '공부하다'는 활용할 때 어미 '-아/-어'가 '-여'로 형태가 변하므로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03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보조 용언 '버리다'는 '간식을 먹는' 행동의 지속을 강조하는 기능이 아니라 '간식을 먹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보조 용언 '나다'는 '책을 읽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의 보조 용언 '보다'는 '옷을 입는'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의 보조 용언 '대다'는 '웃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의 보조 용언 '싶다'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4 관계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의 '에'는 앞말이 목표나 목적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 '에'의 사례로는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있다.'의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오늘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의 '에'는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나는 요란한 천둥소리에 잠을 깼다.'의 '에'는 앞말이 이유나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나는 하루에 네 번씩 이를 닦는다.'의 '에'는 앞말이 기준이 되는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5 수식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이'는 지시 관형사인데, 다른 관형사인 '두'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인 '두 사람'을 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 관형사가 다른 관형사를 수식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옛'은 친구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나)의 '두'는 사람의 수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다)의 관형사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과 형태가 같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라)의 '이 모든 헌'에서 '이'는 지시 관형사, '모든'은 수 관형사, '헌'은 성상 관형사에 해당한다. 여러 개의 관형사를 나열할 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가 맨 뒤에 놓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6 어휘의 활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형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다.'의 '뼈'는 '어떤 의도나 저의(底意)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이 작품의 뼈만 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의 '뼈'는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나 핵심'이라는 의미로 둘 다 주변 의미에 해당한다. '뼈'의 중심 의미는 '척추동물의 살 속에서 그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물질'이다. 따라서 ㉠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는 축구를 하다 다리에 쥐가 났다.'의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으로 '다리'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 식탁은 다리가 짧아 사용하기 불편하다.'의 '다리'는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으로 '다리'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나는 자꾸 기침이 나서 약을 먹었다.'의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의 의미로 '먹다'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솜이 물을 먹어서 무겁다.'의 '먹다'는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의 의미로 '먹다'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그는 백 살까지 살았다.'의 '살다'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로 '살다'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잿더미에 불씨가 아직 살아 있다.'의 '살다'는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의 의미로 '살다'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아이가 밥을 먹으려 입을 벌렸다.'의 '입'은 '입술에서 후두(喉頭)까지의 부분'의 의미로 '입'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아들이 떠나면서 집에 입이 하나 줄었다.'의 '입'은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의 의미로 '입'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5 언어

본문 69~71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물은 얼음이 되었다.'에서 '물은' 앞에 '차가운'을 삽입하면 '차가운 물은 얼음이 되었다.'가 된다. 여기에서 '차가운'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관형어이다. 관형어는 부속 성분으로, '차가운'이 삽입되어도 문장이 주성분으로만 구성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물은' 앞에 '과연'을 삽입하면 '과연 물은 얼음이 되었다.'가 된다. 이 문장에서 '과연'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다.

③ '물은'을 '물이'로 바꾸면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된다. 이 문장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문장 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얼음이'를 '얼음으로'로 바꾸면 '물은 얼음으로 되었다.'가 된다. 이 문장에서 '얼음으로'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⑤ '되었다'를 '아니었다'로 바꾸면 '물은 얼음이 아니었다.'가 된다. 이 문장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필수 성분으로만 구성된다.

02 문장 성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어제는 온종일 함박눈만 내렸다.'나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의 '내리다'는 모두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잘 가던 손목시계까지 멈추었다.'의 '멈추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우리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의 '멈추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동생은 형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의 '놓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그 사람들은 개울에 다리를 놓았다.'의 '놓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우리는 수레를 뒤에서 힘껏 밀었다.'의 '밀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그 친구들은 나를 반장으로 밀었다.'의 '밀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⑤ '은행에서 고객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의 '잡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고, '잠복하던 경찰이 범행 현장을 잡았다.'의 '잡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03 문장 성분별 특성 – 관형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맨'은 '더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 아이는'의 '그'는 지시 관형사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③ '어머니의 옆을'의 '어머니의'는 체언 '어머니'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④ '학교 운동장에서'의 '학교'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은 체언으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⑤ '지는 달을'의 '지는'은 용언 어간 '지-'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형태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04 시간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지었다'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하지만 ㉠의 '생겼더라'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생겼더라'에서 '-더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미 '-더-'와 어미 '-라'가 결합한 말이다.

② ㉡의 '갈라진'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③ ㉢의 '맑았었는데'에서 선어말 어미 '-았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⑤ ㉠의 '어제', ㉢의 '예전'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휘이다.

05 사동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게 하였다.'와 같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에서도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우리가 오빠를 집에 남게 하였다.'와 같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먹였다'(먹-+-이-+-었-+-다)에는 사동 접미사 '-이-'가, ㉡의 '남겼다'(남-+-기-+-었-+-다)에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었다.

② ㉠의 사동문에는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인 '어머니'가 포함되었고, ㉡의 사동문에는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인 '우리'가 포함되었다.

④ ㉠, ㉡ 모두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이다. 한편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세 자리이다.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씩 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인 '아들'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고,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인 '오빠'는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06 객체 높임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는 그때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보았다.'에서 '주무시는'은 안긴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 어휘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객체 높임 표현이 아닌 주체 높임 표현이 실현된 문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드렸다'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② '모시고'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손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③ '여쭈어보니'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④ '뵌'은 안긴절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06 언어

본문 72~75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③
05 ⑤ 06 ④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이다. '경치도 아름다웠다.'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이다. 그리고 '그는 대학생은 아니었다.'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이다. ㉡, ㉢의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개수가 3개이고, ㉢에서 주성분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개수가 3개이다.

② ㉡은 주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고, ㉢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문장은 모두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③ ㉠에는 '물도', ㉣에는 '빵을'이 목적어로 쓰였다.

④ ㉣에서 부속 성분인 '그에게'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에서 부속 성분인 '그'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본용언 한 개, 보조 용언 세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즉 '먹다'는 본용언, '싶다', '하다', '않다'는 모두 보조 용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먹고 갔다'에서 '먹다', '가다'는 모두 본용언이다.

② '먹지 않았다'에서 '먹다'는 본용언, '않다'는 보조 용언이다.

③ '먹고 있지 않았다'에서 '먹다'는 본용언, '있다', '않다'는 보조 용언이다.

④ '먹고 가지 않았다'에서 '먹다', '가다'는 본용언, '않다'는 보조 용언이다.

03 문장의 짜임과 활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절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하지만 ㉠, ㉡, ㉢은 겹문장이기는 하지만 절을 안고 있지는 않다. '학생 1'은 '안긴절을 포함

한 겹문장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 '㉠, ㉡, ㉢'의 두 부류로 문장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 ㉣은 대등적 연결 어미로 앞 절과 뒤 절이 연결되어 있고, ㉡은 종속적 연결 어미로 앞 절과 뒤 절이 연결되어 있다. '학생 2'는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 ㉢, ㉣'과 '㉡'의 두 부류로 문장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04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은 '간접 인용절'이고,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은 '청유형'이다. 이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자고 말했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이 포함되지 않았다.

④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포함되지도 않았고,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⑤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05 피동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배우다'는 '*배우이다/*배우히다/*배우리다/*배우기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듣다'는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피동사 '들리다'로 쓰일 수 있다. 다만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에서는 '들렸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면 어법에 맞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해당 문맥에서는 피동사가 쓰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에 제시된 예가 적절하지 않다.

③ ㉠, ㉡에 제시된 예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

06 부정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 '동생은 안 귀엽다.'와 같이 짧은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다.

b. 짧은 부정을 통한 '안' 부정문인 '동생은 안 귀엽다.'에서 '동생은 결코 안 귀엽다.'와 같이 주어 뒤에 '결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긴 부정을 통한 '안' 부정문인 '동생은 귀엽지 않다.'에서 '동생은 결코 귀엽지 않다.'와 같이 주어 뒤에 '결코'가 쓰일 수 있다.

c. '동생은 귀엽지 않다.'처럼 긴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그는 교육자답지 못하다.'처럼 긴 부정을 통해 '못'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d. '동생은 귀엽지 않다.'에서 '동생은 전혀 귀엽지 않다.'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그는 교육자답지 않다.'에서 '그는 전혀 교육자답지 않다.'로 쓰일 수 있다. 이로 보아 '안' 부정문이든 '못' 부정문이든 긴 부정일 때 주어 뒤에 '전혀'가 쓰일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개념

EBS 대표강사들과 함께 하는
수능의 개념을 잡아주는 필수 기본서

07 언어

본문 76~78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④
05 ② 06 ③

01 문장 성분별 특성 – 주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에서 '정부에서'는 체언 '정부'에 격 조사 '에서'가 붙은 주어이다.
㉢ '선생님께서 오시니 학생들이 인사를 했다.'에서 '선생님께서'는 체언 '선생님'에 격 조사 '께서'가 붙은 주어이다.
㉣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갈 수 없었다.'에서 '밤도'는 체언 '밤'에 보조사 '도'가 붙은 주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오빠가 장학생이 아니라니 정말 의외였다.'에서 '장학생이'는 체언 '장학생'에 격 조사 '이'가 붙은 말로, 주어가 아니라 보어에 해당한다.

02 문장의 짜임과 활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그가 냉소적인'은 관형사절로, '것'을 수식하고 있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어의 형식으로 나타낸 서술절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사태가 진정되기'는 명사절로, 보조사 '만'이 결합되어 있다.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았지만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의 '사태가 진정되기'는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고, ㉡의 '그가 냉소적인'도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두 절 모두 필수 성분을 다 갖추고 있다.
④ ㉠의 '무표정한', ㉢의 '학교로 뛰어가던'은 관형사절로, '무표정한'에는 주어인 '그가'가, '학교로 뛰어가던'에는 주어인 '그들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의 '가감 없이'와 ㉢의 '학생들이 지나가도록'은 모두 부사절이다.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03 동작상 – 진행상, 완료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아저씨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는 문맥에 따라 넥타이를 매는 동작을 진행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이로 보아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는 진행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③ '실험실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는 완료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④ '우리 형이 빵을 다 먹어 버렸다.'는 완료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⑤ '아름다운 장미꽃이 시들어 갔다.'는 진행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04 높임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수업이 없으신'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인 '선생님'과 관련된 '수업'을 높였고, '책이 많으신'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책'을 높였다. 즉 두 문장에는 공통적으로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인 간접 주체 높임 표현이 실현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요'라는 보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이 아닌 청자를 높였다. ㉠에서 보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지 않다.
② ㉠, ㉡ 모두에서 특수한 어휘를 통해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지 않다.
③ ㉠에서 '여쭈어보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목적어가 아닌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였다. ㉡에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지 않다.
⑤ ㉠에서 '께'라는 부사격 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였다. ㉡에서 부사격 조사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높이고 있지 않다.

05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녹여졌다'에는 사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 피동이 사용되었다. 이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에는 피동 접미사가 두 번 결합된 서술어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졌다.'를 '형'이 주어인 능동문으로 바꾸

면 '형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가 된다. 이처럼 문장에 목적어 '그림을'이 포함된다.
③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다.'를 '그'가 주어인 문장으로 바꾸면 '그가 용광로에서 쇠를 녹였다.'가 된다. 바뀐 문장은 사동문이다.
④ '외삼촌이 이삿짐을 옮겼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사동문이다. 하지만 대응되는 주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⑤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졌다.'와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다.'의 '그려졌다', '녹여졌다'는 용언 어간에 '-어지-'가 결합된 '-어지다' 피동이 사용되었다.

06 인용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시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오늘 자기는 영화관에 안 갈 것 같다고 했다.'가 된다. 밑줄 친 부분에서는 직접 인용에서의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에서 '오늘'로 바뀌었고, 직접 인용에서의 인칭 표현 '나'가 간접 인용에서 '자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간 표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인칭 표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인칭 표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시간 표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시간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부정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인칭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부정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언어

본문 79~82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1 통일성, 응집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소년'은 뒤 문장에서 '그'로 재수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녀'는 수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대명사 '그'뿐 아니라 지시 관형사 '그'가 붙은 '그 소년'도 수용어로 쓰일 수 있다.
③ '이거'는 '휴대 전화'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앞에 나온 '휴대 전화'가 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말로 대체된 것이다.
④ 앞 문장에 나온 '강릉'을 뒤 문장에서 '거기'로 대체한 것으로, 이때 수용어인 '거기'는 '강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우리 할머니'를 재수용하는 말이 생략된 문장이다.

02 통일성, 응집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손톱'은 '손'의 하위어가 아니다. ㉤은 '손톱'과 '손'이라는 부분 – 전체 관계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피부'와 '살갗'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친구'와 '벗'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볼'과 '얼굴'이 부분 – 전체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강아지'가 '동물'로 재수용된 것으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어인 '동물'이 하위어인 '강아지'의 뒤에 오고 있다.

03 담화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거'가 지시하는 대상은 동생이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는 우유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저거'가 지시하는 대상은 진열장의 상품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이'가 지시하는 대상은 친구와 함께 듣고 있는 음악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그'가 지시하는 대상은 딸 옆에 있는 가방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거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04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현수'의 첫 번째 말에서 '우리 동아리'는 이들이 속한 수학 연구 동아리를 가리키고, '영훈'의 두 번째 말에서 '우리 반'은 '영훈'의 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현수', '영훈', '용찬' 이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영훈'의 반을, ㉥은 '용찬'의 반을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은 '용찬'과 '현수'를 가리키고, ㉦은 '영훈'과 '현수'를 가리킨다.

④ ㉣은 '영훈'이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이지만, ㉥은 '용찬'이 자기 반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은 '용찬'과 '현수'를 가리키고, ㉧은 '영훈'과 '현수'를 가리킨다.

05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과 ㉦이 가리키는 인물은 모두 '주원'의 엄마이나, ㉢이 가리키는 인물은 '외할머니'이고 ㉨이 가리키는 인물은 '주원'의 엄마 본인이므로 ㉢과 ㉨이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보람')가 지칭 대상인 인물과 청자('주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엄마를 '외할머니'로, ㉦은 화자('외할머니')가 지칭 대상인 인물과 청자('주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딸을 '엄마'로 지칭한 것이다.

② ㉡과 ㉥은 둘 다 '보람'을 가리킨다. ㉡은 화자가 '외할머니'이어서 '우리 딸'로, ㉧은 화자가 '주원'이어서 '이모'로 표현된 것이다.

④ ㉤은 '외할머니'가 손자를 호칭하면서, ㉨은 언니가 동생을 호칭하면서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이다.

⑤ ㉦의 화자는 '외할머니'이고 ㉧의 화자는 '주원'으로 서로 다르지만, '외할머니'가 '주원'에게 '주원'의 엄마를 지칭하는 말과 '주원'이 자신의 엄마를 호칭하는 말이 둘 다 '엄마'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06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애들아,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으라는 행위를 지시하면서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종결 표현이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직접 발화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밖에 비 오네."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우산을 챙겨 갈 것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② "저거 안 보이세요?"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조용히 하라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③ "지금 슈퍼 문 열렸겠지?"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슈퍼에 가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 오라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⑤ "저 여기서 내립니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자기가 하차할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09 언어

본문 83~88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①

01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의 'ㅎ'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ㄱ'과 축약된 형태가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깋+과'에서 'ㅎ'과 'ㄱ'이 축약한 '길과'가 나타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도 '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깋+이'를 이어 적은 '길히'가 나타난다. 그리고 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탈락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길'이 나타난다.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중세 국어에서 '하'는 화자가 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의 호격 조사라고 하였고, '아'는 같은 신분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라고 하였다. 따라서 '大王(대왕)하'는 화자보다 '大王(대왕)'이 윗사람일 때 쓰는 표현이고, '大王(대왕)아'는 화자가 '大王(대왕)'보다 윗사람일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세 국어의 '하'는 높임의 호격 조사이므로 '님금하'의 '하'가 '님금'을 높이는 호격 조사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다.

③ '아'가 모음 뒤에서 '야'로도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근대 국어 시기에 소멸되고 조사 없이 접미사 '-님'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비존칭의 호격 조사가 근대 국어에서부터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3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부텻'은 명사 '부텨'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부텻'을 명사라고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지시 관형사 '그'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는 관형사절 '내 지븨 이싫'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는 명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아기아ᄃᆞᆯ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는 '너비 光明이 비취다'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너비 光明이 비취닷'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4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내히'의 'ᄂᆡᆼ'은 'ㅎ' 종성 체언이다. '내히'는 'ᄂᆡᆼ+이'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주격 조사 '히'가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픈'은 '깊은'을 이어 적기 한 형태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ᄇᆞᄅᆞ매'는 'ᄇᆞᄅᆞᆷ애'를 이어 적기 한 형태로, 체언 'ᄇᆞᄅᆞᆷ'과 조사 '애'가 결합할 때 양성 모음끼리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ᄠᅳᆮ'의 어두에는 서로 다른 자음 'ㅂ'과 'ㄷ'이 연이어 나타났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모ᄅᆞᄉᆞᄫᅳᆯ리'는 '모ᄅᆞ-+-ᄉᆞᆯ-+-ᄋᆞ리'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ᄉᆞᆯ-'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ᄇᆞ리시고'의 '-시-'는 화자인 '耶輸(야수)'가 '妻眷(처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如來(여래(태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ᄋᆞ)샤-'는 이 글의 서술자가 말하는 행위의 주체인 '耶輸(야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의 '-ᄋᆞ시-'는 화자인 '耶輸(야수)'가 자신을 아내로 삼는 행위의 주체인 '如來(여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의 '-ᄉᆞᆯ-'은 화자인 '耶輸(야수)'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의 '-ᄉᆞᆸ-'은 화자인 '耶輸(야수)'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하ᄂᆞᆯ'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06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는 '그츨씨'를 통해 '긏다'라는 기본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치샤'는 '긏이샤'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사동 접미사는 '-히-'가 아니라 '-이-'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서는 '그우러'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그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우릴씨니'를 통해 사동사가 '그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울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③ ㉢에서는 '뮈며'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뮈우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뮈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우-'임을 알 수 있다.

④ ㉣에서는 'ᄭᅵ시니라'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ᄭ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ᄭᅵ오ᄂᆞ니'를 통해 사동사가 'ᄭᅵ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오-'임을 알 수 있다.

⑤ ㉤에서는 '깊고'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피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기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깊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10 언어

본문 89~9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1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흐리-+-어'가 '흐리여'가 되는 것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반모음화가 아니라 반모음 'j'의 첨가가 일어난 것이므로 15세기 반모음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티-+-움'이 '튬'이 되는 것은 '티'의 'ㅣ'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바+이라'가 '배라'가 되는 것은 '이라'의 'ㅣ'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ᄭᅮ미-+-어'가 'ᄭᅮ며'가 된 것은 '미'의 'ㅣ'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ᄂᆞᆫ호-+-아'가 'ᄂᆞᆫ화'가 된 것은 '호'의 'ㅗ'가 반모음 'w'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져도'가 [저도]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탈락했기 때문이지 반모음 'j'가 첨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의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것은 서로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피-+-어'가 '펴[펴:]'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는데 '살피-+-어'가 '살펴[살펴]'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보상적 장음화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에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으로 '살피-'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나눠[나눠]'와 '둬[둬:]'는 모두 단모음 'ㅜ'가 반모음 'w'로 바뀌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써[써]'는 '쓰-+-어'에서 단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피-+-어 → 펴[펴:]'의 경우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3 문장의 짜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내 앞을 지나갔다.'에는 관형사절 '(학생이) 교복을 입은'이 안겨 있다. 이 관형사절은 주어가 생략된 절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울은 인구가 많다.'는 '인구가 많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따라서 홑문장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② '민재가 결백함이 밝혀졌다.'에서 '민재가 결백함'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그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에서 인용절은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이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했다고'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⑤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두 번 성립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성립한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04 문장 성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므로 1차 성분으로 2개의 주어가 필요하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연재의'는 관형어, '많이'는 부사어이므로 둘 다 2차 성분에 해당한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 '읽는다'가 요구하는 1차 성분은 주어인 '연재의 동생은'과 목적어인 '책을'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③ (나)에서 1차 성분은 주어인 '나는', 목적어인 '새 신발을', 필수적 부사어인 '신발장에'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⑤ (나)에서는 '새'가 관형어로 2차 성분에 해당하고, (다)에서는 '문제의'가 관형어로 2차 성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05 수식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아마'는 문장 내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내일쯤 아마 물건이 도착할 것이다.'와 같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가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의 부사 '빨리'는 보조사 '만'과 결합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다)의 부사 '그러나'는 앞 문장과 뒤 문장 사이에 쓰이어 문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라)의 부사 '결코'는 '아니다'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마)의 부사 '아주'는 다른 부사 '높이'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11 언어

본문 92~94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1 음운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많아'가 [마:나]로 발음되는 것은, '많-'에 '-아'가 결합하면서 후음 'ㅎ'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 결과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표적인 음운 배열 제약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실눈'이 [실:룬]으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 'ㄹ' 뒤에 비음 'ㄴ'이 와서 'ㄴ'이 유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② '곧고'가 [곧꼬]로 발음되는 것은, 파열음 예사소리 'ㄷ' 뒤에 파열음 예사소리 'ㄱ'이 와서 'ㄱ'이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③ '낳지'가 [나:치]로 발음되는 것은, 후음 'ㅎ'이 파찰음 예사소리 'ㅈ'과 인접하여 두 소리가 거센소리로 축약되었기 때문이다.

⑤ '다쳐'가 [다처]로 발음되는 것은, 경구개음 'ㅊ' 뒤에 있는 반모음 'j'가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02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날렸다'는 어간 '날리-'에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날리-'의 '-리-'는 어간 '날-'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어미가 아니며 서술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용언의 어간 '덮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덮이다'는 '덮다'의 피동사로, 용언의 어간 '덮-'에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② ⓑ는 어간 '거세-'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는 체언 '바람'에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는 용언의 어간 '높-'에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03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는 관형사절 '내가 어제 만난'과 서술절 '책이 정말 많았다'가 안겨 있다. 여기서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에서는 부사절 '돈도 전혀 없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두 개의 절이 안겨 있는데, 관형사절 '내가 어제 만난'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술절 '책이 정말 많았다'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에 안겨 있는 명사절 '고향에 돌아가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에 안겨 있는 명사절 '고향에 돌아가기'에는 부사어 '고향에'가, ㉢에 안겨 있는 부사절 '돈도 전혀 없이'에는 부사어 '전혀'가 포함되어 있다.

⑤ ㉠은 관형사절과 서술절이, ㉡은 명사절이, ㉢은 부사절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지만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04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 '잘하며'에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며'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심었구나'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구나'가 쓰였다.

② '청소하는'은 어간 '청소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④ '도착하셨니'에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가 쓰였다.

⑤ '불겠지만'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 연결 어미 '-지만'이 쓰였다.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지마는'의 준말이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개야밀'은 '어엿비 너기고'의 목적어로, '개야미'에 목적격 조사 'ㄹ'이 결합한 형태이다. ⓑ에서 '잡일'은 '아니ᄒᆞ며'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에서 '말도'는 '몯

ᄒᆞ야'의 목적어로, '말'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목적격 조사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에서 '그를'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글'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이어 적기(연철)가 된 형태이다. ⓓ에서 '아ᄃᆞᆯ'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아ᄃᆞᆯ'에 목적격 조사 'ᄋᆞᆯ'이 붙어 이어 적기(연철)가 된 형태이다. ⓕ에서 '쇠를'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쇠'에 목적격 조사 'ᄅᆞᆯ'이 붙은 형태이다.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12 언어

본문 95~98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1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5세기 국어의 '글발'은 'ㅸ'이 'ㅏ' 앞에서 'ㅱ'로 바뀌면서 '글왈'로 변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ㅸ'은 15세기 후반부터, 'ㅿ'은 16세기부터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15세기 국어의 '칩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칧-'으로 나타났으며, '치ᄇᆞ니'는 '칧-'이 '-으니'와 결합하여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④ 15세기 국어의 '지ᅀᅥ'는 'ㅿ'이 소멸하면서 '지어'로 변하였다.

⑤ 현대 국어의 '춥다'는 '추우니'와 같이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02 국어사전 정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굽다[1]'의 어원 정보 중 '구버'를 통해 '굽다[1]'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ㅸ'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굽다[2]'의 어원 정보에서 '구블 시라'를 보면 '굽다[2]'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ㅸ'이 아니라 'ㅂ'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서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굽다[1]'은 '【…을】'을 통해 '굽다[2]'와 달리 목적어를 요구하므로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② '굽다[2]'는 '굽어, 굽으니, 굽는다, 굽다'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모두 '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굽다[1]'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이 '구워, 구우니' 등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굽다[1]'의 활용형 '구워, 구우니'로 보아, 어미 '-은'이 결합한 '굽다[1]'의 활용형은 '구운'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굽다[2]'의 활용형 '굽어, 굽으니'로 보아, 어미 '-은'이 결합한 '굽다[2]'의 활용형은 '굽은'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굽다[1]'의 어원 정보 중 '굽ᄂᆞᆫ'을 통해 '굽다[1]'이 자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 '-ㄴ'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ㅂ'으로 나타났음을, '굽다[2]'의 어원 정보 중 '굽거늘'을 통해 '굽다[2]'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거늘'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ㅂ'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03 파생어의 형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걱정되는'은 어근 '걱정'에 접미사 '-되-'가 결합한 동사 '걱정되다'의 활용형으로, 이때 '-되-'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피동의 뜻을 더하는 동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영광된'은 어근 '영광'에 접미사 '-되-'가 결합한 형용사 '영광되다'의 활용형으로, '영광스럽다'가 '영광되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신비로운'은 어근 '신비'에 접미사 '-롭-'이 결합한 형용사 '신비롭다'의 활용형으로, '신비스럽다'가 '신비롭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자유로운'은 어근 '자유'에 접미사 '-롭-'이 결합한 형용사 '자유롭다'의 활용형으로, '자유스럽다'가 '자유롭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명예로운'은 어근 '명예'에 접미사 '-롭-'이 결합한 형용사 '명예롭다'의 활용형으로, '명예스럽다'가 '명예롭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4 안은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키가 작은'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실현된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무가 잘 자라도록'은 부사절에 해당한다.

③ '바람이 거세지기'는 명사절에 해당한다.

④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은 명사절에 해당한다.

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온다는'은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05 시제, 실현 인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는 '-겠-'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때 이와 유사한 의미로 선어말 어미 '-(으)리-'가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 '-겠-'과 '-으리-'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었-'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 부사어로 '벌써'가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에서 '-겠-'과 '-으리-'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근무하시는군요', '근무하셨(-시-+-었-)군요'를 보면, '-시-'가 '-는-', '-었-' 따위의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함을 알 수 있다.

② '근무하셨(-시-+-었-)군요'를 보면, '-시-'와 '-었-'이 한 음절로 줄여 쓰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끝내었겠다', '끝내었으리라'를 보면, '-었-'이 '-겠-', '-으리-' 따위의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함을 알 수 있다.

⑤ '간다고'와 '먹는다고'를 비교해 보면,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에 따라 '-ㄴ-'과 '-는-'으로 형태가 달리 선택됨을 알 수 있다. 또 '갔다고'와 '먹었다고'를 비교해 보면,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에 따라 '-았-'과 '-었-'으로 형태가 달리 선택됨을 알 수 있다.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바쁜 수험생을 위한 가장 빠른 수능완성 학습법
수능완성에 수록된 지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

13 언어

본문 99~102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③

01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팔당'은 경음화(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팔땅]으로 발음된다.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지만 'Paltang'가 아닌 'Paldang'로 표기해야 옳다. 'ㄷ'은 모음 앞에서는 'd'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ㄹㄹ'은 'll'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라[실라]'는 'Sila'가 아닌 'Silla'로 표기해야 옳다.

②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묵호[무코]'에서는 'ㅎ'을 밝혀 'Mukho'로 표기해야 옳다.

④ 비음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백마[뱅마]'에서는 'ㄱ'을 'ㅇ'으로 적어 'Baengma'로 표기해야 옳다.

⑤ '-ㅚ'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광희문[광히문]'에서는 '-ㅚ'를 'ui'로 적어 'Gwanghuimun'으로 표기해야 옳다.

02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는 'e', '웨'는 'we'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w'가 선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와'는 'wa', '왜'는 'wae'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우'는 'u', '유'는 'yu'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y'가 선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는 'a', '와'는 'wa'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w'가 선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야'는 'ya', '애'는 'yae'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03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우러러보다'(우러르-+-어+보-+-다)는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 어간이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용언 어간+용언 어간'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로는 용언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 어간과 바로 연결된 '검붉다'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접칼'은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접칼'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어린이'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기 때문에 '어린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퍼내다'는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 어간이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기 때문에 '퍼내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보슬비'는 자립성이 없는 어근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슬비'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4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살려'는 '약해진 불 따위를 다시 타게 하거나 비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동사 '살리다'의 활용형으로, '살-+-리-+-어'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접미사 '-리-'는 피동이 아닌 사동의 뜻을 더해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돋워'는 '입맛을 당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돋우다'의 활용형으로, '돋-+-우-+-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우-'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③ '나뉘어'는 '하나가 둘 이상으로 갈리다.'라는 뜻을 가진 '나뉘다'의 활용형으로, '나누-+-이-+-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④ '잡혀'는 '담보로 맡기다.'라는 뜻을 가진 '잡히다'의 활용형으로, '잡-+-히-+-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히-'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⑤ '감겨'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말리거나 빙 둘리다.'라는 뜻을 가진 '감기다'의 활용형으로, '감-+-기-+-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05 시대 · 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어미의'라는 현대어 풀이를 볼 때 '어ᄆᆡ'(어미 + 의)에는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바ᄇᆞᆯ'(밥을), '밥ᄇᆞᆯ'(밥을)은 모두 '밥 + ᄋᆞᆯ'을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바ᄇᆞᆯ'에서는 이어 적기로 표기하였고, '밥ᄇᆞᆯ'에서는 거듭 적기로 표기하였다.

② '짜ᄒᆡ'(땅에)에서 'ㅉ'은 경음(된소리) 계열 자음의 표기이다.

④ '손ᄉᆞᆫ은'(손은), '아ᄒᆡᄂᆞᆫ'(아이는)에서 보조사 '은/ᄂᆞᆫ'이 사용되었다.

⑤ '치기'(모시기), '구ᄒᆞ기'(구하기)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어휘로 판가름 나는 수능 등급
지문·발문·선지의 어휘 총망라 수록!

14 언어

본문 103~105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②

01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ㄷ'이나 'ㅌ'이 'ㅈ'이나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마디'는 '마ᄃᆡ, 마듸', '티끌'은 'ᄐᆡ글, 틧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ᄃᆡ, 마듸'와 'ᄐᆡ글, 틧글'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ㅈ, ㅊ' 뒤에서 반모음 'j'를 발음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보기〉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근대 국어 시기에는 'ㅈ, ㅊ'의 조음 위치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근대 국어 시기에는 '디나다 > 지나다'에서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사례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평안도 방언에서의 'ㅈ, ㅊ'이 경구개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쪄'는 [쩌]로 발음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ㅉ'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솥이'는 '솥이 → 소티 → [소치]'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가죠'의 '죠'에서 'ㅈ' 뒤의 반모음 'j'는 탈락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밭일'은 '밭일 → 받닐 → [반닐]'로 발음되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끝으로[끄트로]'는 'ㅌ' 뒤에 놓이는 모음이 'ㅣ'가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3 시간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종소리를 듣고서 교실을 나섰다.'에서 어미 '-고서'는 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임이 강조되므로 진행상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 가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③ '-으면서'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⑤ '-는 중이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04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형용사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시끄럽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웃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② 형용사의 경우 의문형 어미 '-(으)냐', 감탄형 어미 '-구나'와 결합하고, 동사의 경우 의문형 어미 '-느냐', 감탄형 어미 '-는구나'와 결합하므로 '찾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③ 형용사의 경우 감탄형 어미 '-구나'와 결합하고, 동사의 경우 '-는구나'와 결합하므로 '젊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④ 형용사의 경우 의문형 어미 '-(으)냐'와 결합하고, 동사의 경우 '-느냐'와 결합하므로 '좋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05 어휘의 변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계란'의 의미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달걀'과 '계란'은 여전히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는 뜻이고, '새'는 '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의 의미로 둘은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합성하여 '틈새'라는 단어를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시늉'은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을 의미하고 '흉내'는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짓'을 의미하는데 둘 다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의어 경쟁을 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즈믄'은 '1,000'을 나타내던 고유어이고, '천(千)'은 '1,000'을 나타내는 한자어인데 '즈믄'은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즈믄'은 소멸하고 '천'은 생존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조'는 '저녁'을 의미하던 옛말인데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의어 경쟁의 결과 소멸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수능완성에서 뽑은 1800단어 수록
수능 어휘 완전 정복 커리큘럼

15 언어

본문 106~109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④ 05 ⑤

01 중세 국어의 표기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버도(쓰-+-어도)'는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가 아니라, '으'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아ᄂᆞᆫ(알-+-ᄂᆞᆫ)'은 '알-'에서의 'ㄹ' 탈락이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것이다.

③ '알코(앓-+-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④ '듣노라(듣-+-노라)'는 비음화가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경우이다. 중세 국어에서 비음화는 표기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⑤ '빗과(빛+과)'는 8개의 종성에 속하지 않는 'ㅊ'이 종성에 놓이면 'ㅅ'으로 발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02 중세 국어의 표기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근대 국어 시기에는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음에도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종성 표기가 'ㄷ'으로 통일되었으리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빗곶'과 '엿의갖'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표의주의 원리에 따른 표기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종성 표기에는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을 사용한다고 한 것은, 당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8가지여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만을 표기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만으로 종성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표음주의 원리에 따른 종성 표기로 볼 수 있다.

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씀'이라는 것은 '빗곶'의 'ㅈ'과 '엿의갖'의 'ㅊ'이 종성에서 'ㅅ'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체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ㄴ.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를 통해 '지'가 붙은 말이 '가'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는 조사가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ㄷ.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를 통해 '지'가 '그를 만난', '한국을 떠난' 따위의 수식을 받지 않으면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해서 문장의 첫머리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어미의 문법적 특성에 해당하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안은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안긴절 '엄마가 사 오신'의 주어는 '엄마가'로 전체 문장의 주어 '명수가'와 다르나, ㉤의 안긴절 '학교에 가기'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같은 '명수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안긴절 '명수가 이번 사건의 범인임'의 종류는 명사절이고, 조사 '이'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의 안긴절 '명수가 빵을 먹은'의 종류는 관형사절이고,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② ㉡의 안긴절은 안긴절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으나, ㉢의 안긴절 '엄마가 사 오신'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③ ㉢은 안긴절을 생략하여도 '명수가 빵을 먹었다.'와 같이 문장이 성립하나, ㉠은 안긴절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의 안긴절 '자전거가 지나가도록'의 종류는 부사절이고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의 안긴절 '학교에 가기'의 종류는 명사절이고 조사 '에'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05 담화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앞에서 '준호'가 언급한 '○○ 해양 박물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자와의 물리적인 거리와 관련되어 쓰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앞선 '준호'의 발화인 "친구가 전시회 초대권을 두 장 줬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해?"를 가리키고 있다.

② ㉡은 오래지 아니한 과거의 어느 때를 이르는 말로, '지우'가 평소 해양 환경 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발표했던 과거의 국어 수업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③ ㉢은 전시회 주제가 '지우'의 평소 관심사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에 미술 수행 평가인 전시회 감상문 쓰기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④ ㉣은 가리키는 대상인 '초대권'이 '준호'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어휘력이 수능 합격을 좌우한다!
수능 필수 적중 어휘만 선별 수록한
40일 단기 완성 VOCA

01 매체

본문 110~114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유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담 참여자인 사회자나 강 소장은 자신들의 발언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③ 사회자와 강 소장은 대화에서 모두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담화를 바탕으로 하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④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의 실시간 영상을 통해 방송 내용이 청취자나 시청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불특정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⑤ 사회자가 방송 중에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확인하여 강 소장에게 묻고, 그 질문에 대해 강 소장이 답변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사회자는 강 소장의 발언 중에서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강 소장의 추가적인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회자는 강 소장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있으나, 강 소장의 설명 중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③ 사회자는 지난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잘못 설명한 내용을 정정하지는 않았다.

④ 사회자는 질문을 통해 강 소장의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⑤ 사회자는 방송의 서두에서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밝혔으나, 방송에서 전달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청취자는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친환경적인 재료'라는 사회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관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송의 대담자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발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청취자는 사회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었으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② 청취자는 사회자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었으나, 방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수용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분명한 사실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④ 청취자는 사회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배경지식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야 함을 지적한 것도 아니다.

⑤ 청취자는 사회자의 발언에 대해 수용자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나, 사회자가 대담자의 설명에 대해 수용자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함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학생이 상담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한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을 상담원과 공유한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누리집의 배너를 통해 연결된 대화 창을 매개로 하여 학생과 상담원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이퍼링크를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 기능을 이용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원하는 체육복 디자인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직접 보여 주고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 대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상품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웹 주소를 알려 주었으므로, 하이퍼링크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육복에 인쇄하고 싶은 문구가 담겨 있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보냈으므로, 디지털 매체 자료를 공유하며 의사소통했다고 할 수 있다.

05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학생은 '^^;;;'이나 '♡.♡'처럼 발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상담원은 ':)'처럼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 기호를 자신의 발화에서 활용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터넷의 대화 창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학생이나 상담원이 시청각 자료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②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상담원이 알려 주고 있으나, 상담원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③ 해당 부분에서 학생이나 상담원은 상대방과 매체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과 상담원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

④ 학생과 상담원과의 대화는 구매 상담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수능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02 매체

본문 115~121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①

01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학생 3'은 교실에 게시된 건강 소식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학생 2'를 위해 자신이 찍어 둔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공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 1'이 카드 뉴스의 제작을 제안하였으나, 그러한 방법을 통해 매체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② '학생 2'는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신이 생산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④ '학생 4'는 외국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학생 4'는 '😢'을, '학생 3'은 '🤔'을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었으나,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이모티콘의 성격이 비판적 태도과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카드 3'이나 '카드 4'에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한 내용이 드러나 있으나, 카페인으로 인해 부작용을 경험한 학생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뉴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카드 뉴스의 내용을 관련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② 카드 뉴스에서 일부 구절의 글자 모양이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강조하고 싶은 문구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도록 하였다.

③ 카페인 섭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카드 뉴스에서 제시하였다.

⑤ 카드 뉴스를 접하는 대상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카드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를 밝히는 문장을 의문형으로 제시하였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65%는 카페인 음료를 하루 1잔 이상 마시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나)의 '카드 3'에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몇 잔 정도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카페인 음료는 무엇인지 보여 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는 '20△△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참고하였음을 밝혔으나, (나)는 카드 뉴스 제작에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② (나)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기〉는 도표를 활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④ 〈보기〉와 (나)는 모두 예상 가능한 비판을 밝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나)는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보여 주지 않았으며, 〈보기〉는 전문가의 견해를 밝히기는 했으나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

04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강연 중에 도식을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예로 들어 인공 지능의 성능이 개선되는 방법이나 과정을 설명하였으나, 인공 지능이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면 1]에서 바둑 기사와 인공 지능의 대국을 보여 주는 영상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② [장면 4]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이 개선되는 방법이나 과정을 설명하여 인공 지능의 구동 방식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④ [장면 2]에서 자동 번역 기능, 문자 및 음성 인식 기능, 지문 인식 기능, 안면 인식 기능, 동작 인식 기능, 자율 주행 기능 등 상용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인공 지능 기술을 언급하였다.

⑤ [장면 3]에서 인공 지능 분야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도식으로 제시하여 시청자가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는 인공 지능과 관련한 용어들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송 매체의 효용성에 주목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텔레비전 강연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문적인 내용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이지만, 〈보기〉의 학생은 강연에 대한 시청자의 준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수반한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③ 방송을 통해 강연자와 시청자가 공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강연 내용이 시청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기〉의 학생은 강연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하는 매체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④ 방송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 전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두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과 시각 자료를 활용한 정보 전달의 한계를 대비하지는 않았다.

⑤ 강연자의 설명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흐름을 따르고 있으나, 〈보기〉의 학생은 그러한 방식으로 인해 강연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오해가 해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03 매체

본문 122~128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① 05 ⑤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는 기사의 최초 작성 일시와 수정 일시가 명시되어 있어 수용자가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각과 수정 시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가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각과 수정 시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기사의 수용자인 '비단잉어'와 '고양이'가 댓글을 이용해 기사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댓글을 통해 기사에 관한 의견을 다른 수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나)에는 지면 상단 좌측에 기사가 실린 지면의 위치가 '3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신문에서 기사가 실린 지면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가)에는 화면 속 본문 상단에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수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면의 글자 크기를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면에 인쇄된 상태이며 수용자가 임의로 글자 크기를 조절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가)의 기사 하단에는 관련 기사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있어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면에 인쇄되어 하이퍼링크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를 본문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업주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도 동일한 설문 결과를 본문에 제시하여 노동 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의 내용 중 아르바이트 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치를 표제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의 사례를 표제에 보여 주어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들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나)에서는 노동 인권을 침해받은 이후에도 참고 계속해서 일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입장을 "그냥 참아요."라고 재구성하여 표제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 인권 침해 행위를 경험한 청소년의 입장을 드러내어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 행위를 당해도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B 청소년 인권 센터장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본문에 인용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문제를 업주의 처벌에 초점을 두어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⑤ (가)와 달리 (나)에서는 A시 청소년 9,292명 중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약 15.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문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적다는 점을 드러내어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문제의 배경에 노동 인권 교육의 공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의료진과 A 양 아버지를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며 [장면 2]와 [장면 3]에서 각각의 발언 내용 일부를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자는 100명이 넘는 시민이 A 양에게 헌혈하기 위해 헌혈의 집을 방문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헌혈의 집에 방문한 시민의 의견을 취재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② (가)의 [장면 1]에서는 진행자가 발화할 때 보도 주제가 자막으로 제시될 뿐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③ 기자는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현재의 보도 내용 사이의 관련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던 ○○시 사거리에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지난 보도 내용과의 관련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삽입하여 사건의 개요를 요약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⑤ (가)의 장면에 비추어 볼 때 진행자와 기자는 각각 다른 곳에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가)의 [장면 2]는 한 화면을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진을 인터뷰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와 의료진으로 화면을 분할한 것이다. 따라서 진행자와 기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04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선호'는 '민서'가 첨부한 뉴스의 내용과 관련해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위급한 환자들이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질문의 형식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선호'의 발화에서 뉴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성'은 뉴스에서 시청자들에게 헌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뉴스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③ '도윤'은 그동안 헌혈에 무심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뉴스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또한 자신처럼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헌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뉴스가 누구에게 유용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민서'는 뉴스를 보고 자신의 동생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어머니가 헌혈을 했던 기억에 대해 말하며 헌혈자가 줄어들면 혈액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뉴스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헌혈자가 감소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것이다.

⑤ '채훈'은 지금처럼 헌혈자가 줄어들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 걱정된다고 말하며 뉴스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헌혈 행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면 어떠냐고 말하며 친구들에게 헌혈과 관련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05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선호'는 두 번째 발화에서 '잠깐의 불편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마지막 부분에 내레이션으로 제시하자고 제안했고 '은성'은 이에 동의했다. #3의 내레이션

중 두 번째 문장은 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도윤'은 세 번째 발화에서 영상에 뉴스를 동영상으로 삽입하자고 제안했고 '민서'는 이에 동의했다. #1에는 뉴스가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동영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민서'는 세 번째 발화에서 뉴스 동영상 삽입과 관련해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1에는 뉴스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처를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선호'는 세 번째 발화에서 혈액이 부족한 상황처럼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효과음을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은성'은 이에 동의했다. #2에는 이미지와 내레이션을 통해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효과음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은성'은 세 번째 발화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에서는 경쾌한 배경 음악을 제시하여 분위기를 전환하자고 제안했고 '채훈'은 이에 동의했다. #3은 내레이션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배경 음악을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다.

FINAL 실전모의고사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04 매체

본문 129~135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①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진행자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다고 다음 방송 시간을 언급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다. 방송을 끝맺는 진행자의 발화나 [장면 5]에 다음 방송의 주제를 예고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가 첫 번째 발화에서 인사를 건네며 방송을 시작할 때 경쾌한 배경 음악이 흐르며 분위기를 경쾌하게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진행자가 방송을 마무리하며 발화를 할 때도 경쾌한 배경 음악이 흐르며 분위기를 경쾌하게 조성하고 있다.

② 전문의는 두 번째 발화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신체 활동이 줄어 하루 총열량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면 2]에서는 전문의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여 자막으로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성인 남녀가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문제 상황으로 언급하며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시작 부분인 [장면 1]에서는 방송의 핵심 내용을 자막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전문의는 네 번째 발화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잠시 화면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면 3]에서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이 장면 전체로 확대되어 제시되고 있다.

02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에서 4개의 버튼에 연결된 메뉴의 이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메뉴로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버튼이 배치된 순서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 메뉴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앱의 개발자가 미리 배치해 놓은 버튼의 순서에 따라서만 앱 안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진행자는 ㉡을 누르면 기존에 스마트폰을 통해 인식된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별도로 신체 활동을 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입력하여 새로 추가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③ 진행자는 ㉢에 카메라 앱이 연동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섭취하는 음식을 앱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사진으로 찍어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신체 활동 관리 앱 안에 연결된 다른 앱을 사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④ 진행자는 ㉣에서 스트레칭 방법을 글로 된 설명 외에도 이미지, 동영상으로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둘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⑤ 진행자는 ㉤에 건강 관련 질문을 글로 올리면 의료진이 답변을 해 주고, 댓글을 통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시청자 1'은 진행자가 신체 활동 관리 앱을 소개하는 내용에 대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 3'은 생활 속에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어도 신체 활동량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전문의의 설명과 관련하여 운동을 시작하기 막막했던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방송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를 점검하며 방송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전문의가 설명해 주니 믿음이 간다고 말하며 출연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시청자 2'는 전문의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잘못된 자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두 시청자 모두 출연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③ '시청자 3'은 자주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었다며 방송을 본 자신의 감상을 밝히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려 노력해야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다룬 내용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자신의 다짐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 2'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를 다룬 방송 내용이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됨을 언급하고 있다. 방송에서 다룬 정보를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시청자 2'는 성인들의 건강을 주제로 한 방송을 보면서 그 내용이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며 확장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 4'는 이왕이면 스트레칭도 알려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부족한 정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두 시청자 모두 방송에서 출연자가 취한 견해가 상반된 두 입장 중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시청자 4'는 방송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유발하는 34개의 만성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를 알려 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방송에서 다룬 정보의 양이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점검한 것은 아니다. '시청자 3'은 방송 내용이 직업 특성상 오래 앉아 있는 자신에게 경각심을 주었다고 언급하며 조금씩이라도 신체 활동량을 늘리려 노력해야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룬 정보의 양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04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진행자는 의료 데이터 과학자의 업무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둔 동영상을 방송 중에 시청자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시청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동영상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모두에게 송출된 것으로, 시청자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9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다고 언급한 후, 일곱 번째 발화에서 동시 접속해 있는 시청자가 3,000명을 돌파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진행자는 일곱 번째 발화에서 '고양이'와 '성공하자'의 채팅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방송을 보고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방송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진행자는 시청자들을 언급할 때 '보리밭', '생글이', '단팥빵' 등 각각의 별명을 부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진행자는 세 번째 발화에서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보리밭'의 채팅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 발화에서 방송 출연자의 설명에 대해 유용한 내용이라고 평가한 '단팥빵'의 채팅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매체의 언어적 특성과 파급력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시청자가 방송 출연자의 근무지인 △△ 병원의 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이다. 이는 근거가 빈약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은 표절, 불법 복제 등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시청자가 자음자만을 사용하여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한 것으로, 다른 시청자인 '보리밭'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시청자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병원 정보를 질문한 것으로, 현재 방송의 맥락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다른 시청자인 '커피좋아'와 '보리밭'의 대화를 방해하고 '칡덩굴'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시청자가 방송 출연자의 사적인 정보를 언급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인 '책벌레'의 말처럼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⑤ ㉤은 시청자가 수험생이라는 다른 시청자의 상황에 관해 방송을 시청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며 비방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상황에 관해 무분별하게 비방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인 '고양이'의 말처럼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05 매체

본문 136~142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리포트 화면 (2)'에서 전문가는 검색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을 상쇄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문제 상황을 균형 있게 진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의 인터뷰는 오히려 예상 가능한 문제 상황의 위험성을 시청자에게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앵커 멘트 화면'에서 앵커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이 93%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웹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과 관련된 뉴스의 내용이 다수의 수용자와 관련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앵커 멘트 화면'에서는 앵커가 전달하는 음성 언어의 내용을 자막으로 간략하게 줄여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전달될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용자가 이어질 뉴스의 내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③ '리포트 화면 (1)'에서는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동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뉴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⑤ '리포트 화면 (3)'에서 기자는 이용자에게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제시된 정보가 수용자의 실제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여 수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를 참고하였을 때 이용자들에게 추천 검색어가 제시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는 제시되는 어떤 정보가 부적절하다면 그 정보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검색어가 아니라, 부적절한 그 정보 자체를 걸러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천 검색어가 제시되는 과정의 적절성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를 참고하였을 때, Ⓐ는 포털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과

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이다. 이는 ㉮가 Ⓐ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② (가)를 참고하였을 때, 포털에서 자체 필터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색어가 부당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시될 위험이 있으므로 Ⓐ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다.

③ (가)를 참고하였을 때, Ⓐ를 운영하는 포털 측에서 관련 서비스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검색어의 추천은 줄어들고 이용자는 자신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 자체를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천 검색어가 부당한 방식에 의해 제시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이용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므로 Ⓐ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03 의사소통으로서의 매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이용자의 관심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의 본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본래의 목적'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와 관련하여 뉴스에서는 '리포트 화면(1)'을 통해 인위적 개입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 검색어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는 특정 검색어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성격을 띤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본래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리포트 화면(3)'에서 반복함으로써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가 그릇된 방식을 통해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한편, 포털에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이 유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앵커'의 말에 따르면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의 '본래의 목적'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에서는 해당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개입에 의한 결과를 선택지로 제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가)의 '기자'가 '본래의 목적'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에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기자'는 '낙인찍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추천 검색어를 제시하는 기능이 누군가에게 과도한 오명을 씌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나)의 '기자'는 '낙인찍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를 그냥 둔다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어 포털 이용자들이 추천 검색어로 인해 특정 인물에 대해 왜곡된 선입견을 형성할 우려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정보 생산자는 '맛 1등 피자' 누리집의 [고객의 소리] 탭에서 화면을 갈무리했음을 밝히고 있다. (나)의 경우 공영 방송 뉴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상호와 같은 고유 명사에 대한 노출이 특정 업체에 대한 홍보로 인식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되 피자 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올빼미'가 게시 글이 오랜만에 올라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가)는 정보를 생산하는 시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마지막에 '앵커'는 '12월 20일 12시', '내일 정오에 다시 뵙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송 뉴스는 정보 전달을 시작하는 시각을 정해 두고 있다. 이는 공적인 매체로 여겨지는 방송 뉴스의 특성과 관련 있다.

③ (가)의 '파란하늘'은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수용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는 문자 언어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나)는 라디오 생방송 뉴스로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④ (가)의 '파란하늘'은 '바닷소리'의 댓글을 통해 제목에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였다. (나)의 '앵커'는 '확인해 보니 12월 8일 정오 뉴스에서 전한 외국 유명 배우 ☆☆의 기부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파란하늘'과 (나)의 '앵커'는 모두 생산된 정보에서 잘못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수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파란하늘'과 (나)의 '앵커'는 모두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의 블로그와 (나)의 라디오 생방송 뉴스가 모두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매체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박 기자'가 '김◇◇ 씨'를 인터뷰한 것은, 공중의 관심사가 된 학생의 글에 등장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고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의 기자가, 누리집의 게시 글이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더 빨리 확산되기를 도모하고자 '김◇◇ 씨'를 인터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바사삭'이 '맛 1등 피자' 게시판에 쓴 글의 조회 수는 37회뿐이지만, '파란하늘'과 같은 초기 확산자 그룹이 해당 내용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스크랩하였다. 그로 인해 (나)와 같은 뉴스에서 해당 사실을 다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올빼미'는 '파란하늘'이 갈무리한 화면의 진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나)의 '박 기자'는 (가)에서 '파란하늘'이 갈무리한 화면 속 '피자 사장님'인 '김◇◇ 씨'를 만나 해당 게시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화제인 이슈의 사실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③ '산위에서'는 '파란하늘'이 게시한 정보를 확인한 수신자이기도 하고, '시원한숲'을 '@'를 통해 태그하여 '시원한숲'이 블로그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시원한숲'에게는 정보 전달자이기도 하다. 이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대중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중의 이슈를 만드는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로 볼 수 있다.

⑤ 공인된 대중 매체인 (나)의 뉴스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이슈인 정보에 관해 보도한 것은 공중의 이슈가 공인된 대중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에서 소통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통해 생성되어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6 매체

본문 143~148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인터넷 방송 내용에서 진행자가 앞서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면 1]을 제시하고 진행자는 '단춧구멍'과 '반짇고리'가 실시간 채팅으로 한 질문을 확인하고, 법정 공휴일 중 일요일을 뺀 공휴일을 합하면 총 15일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② [화면 1]을 제시하면서 공휴일의 지정 방식에 대해 얘기하던 진행자는 '피자'의 실시간 채팅 내용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절이 요일 지정 공휴일이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④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는 문자 언어로 구성된 자료를 화면에 제시하고 음성 언어로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시청자는 문자 언어를 통해 진행자와 소통하고 있다.

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열쇠고리'와 '꽃서랍', '딸기잼'은 방송 내용으로 제시된 2016년 6월의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진행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방송 내용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진행자는 요일 지정 공휴일에 대한 장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화면 1]을 제시한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정보가 OECD의 발표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진행자는 지난 5년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15일 중 실제로 쉬었던 날은 평균적으로 12일이라는 것을 자신이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2016년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이후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로 당시 신문 기사의 제목을 모은 이미지를 [화면 2]로 제시하고 있다.

⑤ 진행자는 공휴일에 대한 설명을 위해 [화면 1]에 국가법령정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본문을 화면에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진행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6년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때의 요일은 금요일이었다. 어린이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이다. 또한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바뀌기 전부터 이미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었던 공휴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화면 1]을 제시한 이후, 공휴일로 지정된 국가적 기념일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를 바르게 살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광복절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의 공휴일이므로 요일 지정 공휴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어린이날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리기 위한 목적의 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날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④ 1월 달력에서 이미 1월 1일은 일요일과 겹치고 이날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도 아니므로 2023년에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규정된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쉬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⑤ 규정이 바뀌기 전에도 설날, 추석 당일이 일요일인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는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었다. 달력에서 설날인 1월 29일은 일요일이므로 바뀌기 전의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04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뉴스의 마지막 내용에서 기자는 시청자에게 등산 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뿐, 이미 전달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뉴스를 시작하는 [장면 1]에서는 보도를 시작할 때 중앙 하단에 큰 자막을 제시하고 배경으로는 멀리서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보도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② [장면 2]에서는 막대그래프 자료를 통해 시청자의 일반적 예상과 달리 등산 시 사고가 일어나는 횟수는 봄철보다 가을철에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출처가 소방청의 자료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청자는 뉴스에 제시된 막대그래프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③ 뉴스에서는 등산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산 산악 구조대 대장의 인터뷰를 제시하였고, 시청자는 이러한 전문가의 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뉴스의 △△산 산악 구조대 대장의 인터뷰 내용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자막의 괄호 부분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시청자는 [장면 3]의 자막을 통해 인터뷰 영상의 음성 언어에서 빠진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05 의사소통으로서의 매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뉴스에서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대하여 제시한 것은 수용자가 산행 시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악 위치 표지판의 생김새를 뚜렷이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정보를 통해 뉴스의 수용자는 위급 상황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 산악 위치 표지판을 요긴히 쓸 수 있게 된다.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것은 산악 위치 표지판 속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뉴스가 시작할 때 앵커는 시청자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예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발화 속에 담긴 산행이라는 행동을 수용자가 심리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정보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안전한 산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앵커의 발화 이후에 등산로가 아닌 길로 다니다 다친 등산객이 구조되는 영상을 제시하는 것은 안전한 산행 방법에 대한 시청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띠는 순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③ 그래프에서 10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색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다른 달보다 짙게 표시하였다. 이는 등산 사고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④ 뉴스에서는 자막과 같은 문자 언어, 기자 및 전문가의 발화 등을 통해 등산 안전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양식을 통해 등산 안전에 관한 숙지 사항을 시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뉴스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7 매체

본문 149~155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청년들을 위한 소모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고민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 화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식당 문이 열리고 카메라가 안으로 이동하여 대표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인터뷰 앞부분에서 대표가 식당을 소개할 때 식당의 메뉴판 사진을 화면에 점점 크게 나타나도록 하여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진행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진행자의 네 번째 발언에서 자금 조달 방법을 묻고 있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진행자의 일곱 번째 발언에서 진행자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옥상에 만들고 있는 만남의 장을 소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대표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인터뷰에서 소모임 관련 온라인 모임 방 운영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했고, 포스터에도 그러한 내용이 문자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모임 참가를 위한 신청 방법을 문자로 안내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터뷰에서 대표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포스터에서도 밥 옆의 하트 그림을 통해 손님을 향한 정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인터뷰에서 대표는 이곳이 청년들의 쉼터이자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고, 포스터에서 집 모양의 식당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옆에 '청년들의 쉼터',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는 온라인 모임 방도 운영 예정'이라는 문자를 제시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기부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포스터 우측에 '여러 가지 물품도 기부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제시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인터뷰에서 언급한 식당의 특징인, 메뉴와 가격에 대한 내용을 포스터 우측에 문자로 제시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E]는 자신도 기부금을 내어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참여 의사를 밝히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D]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D]가 기존 운영 방식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E]가 기존 운영 방식 개선을 주장하는 [D]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자신이 어렵게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밥집을 만든 취지에 대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텔레비전에 나온 밥집에 자신도 직접 가서 모임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위로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C]는 청년 밥집의 이용 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인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까 봐 우려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C]는 재정상에 문제가 생겨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D]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기부를 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C]가 우려하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카드 뉴스로, 문자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인터넷에 게시된 신문 기사로,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나 정보 수용자로 하여금 이와 관련하여 특정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③ (가)는 인터넷에 게시된 신문 기사이며, (나)는 (가)의 연관 검색어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카드 뉴스이다. 둘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댓글 아래 다른 신문 기사로 이어지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있어서 해당 기사와 연관된 자료에 대한 읽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에서 모두 정보 수용자와 정보 생산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로 인한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서 언급한 누리집의 유형에 따른 피해 발생 원인을 분석한 정보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 연구소라는 전문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이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는 온라인 중고 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선 입금 후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조 상품 배송 피해를 막기 위해'와 같이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가)는 누리집의 상단에 입력 시간과 수정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생산자가 정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입력한 정보를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는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 그 이유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온라인 중고 거래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지어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8 매체

본문 156~164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 '상철'은 자신이 검색한 자료를 전자 쓰레기의 위험성 제시에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림을 그려서 '수현'에게 보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발표 순서에 대한 '수현'의 계획을 변경하여 제안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수현'은 전자 쓰레기와 관련된 기사를, ㉡에서 '은정'은 전자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하이퍼링크로 공유하며 전자 쓰레기를 주제로 선정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 '원영'은 '은정'이 공유해서 제시한 자료의 연관 기사를 찾아, 연관 기사에 실린 전자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방안을 발표 내용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수현'은 지난번에 혜진이가 발표할 때 효과음으로 사용했던 폭발음과 관련된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며 발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향 효과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⑤ ㉥에서 '은정'은 발표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일단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통일성을 위한 선택적인 자료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는 화면에 제시되는 그림과 음성 정보로 제공되는 내레이션 등 매체의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전자 제품 소비의 증가로 인한 전자 쓰레기 증가량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② (나)에서 각 장면마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보기〉는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역시 발표라는 공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 전자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 대상을 예로 들어 그 이동 경로에 따라 설명한 것은 아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5에서는 개인적 차원끼리, 사회적 차원끼리 묶어서 방안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각 항목별 내용이 원 안에 글씨가 쓰인 형태로 제시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에서는 쓰레기봉투 안에 어떤 전자 쓰레기가 있는지 물품의 이름이 적혀 있다. 또한 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얼굴을 찡그리며 울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 지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2에서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여 연도별로 전자 쓰레기 배출량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시하고 있다.
③ #3과 #4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명칭을 말풍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④ #3과 #4의 '내레이션 및 배경 음악'에서 내레이션 뒤에 '충격 효과음'을 삽입하고 있다. (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격 효과음'을 사용한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들 각각이 가진 후보 선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거의 의미와 올바른 선거 참여 자세 등에 대해 전달한 것이므로 (나)에 비해 제시된 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이미 구성, 제작된 교육 영상을 접하고 수용자들이 이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을 통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청소년층을 수용자로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상 내용도 청소년층의 투표 참여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가)가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수용자인 국민 모두가 면접관이 되어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제,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면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인 유권자들이 면접관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자신 있나요?'라는 형태의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진 후에 질문과 관련지어 후보를 선택하는 대한민국 면접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내용을 제시한 (가)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학생 1'과 '학생 2'는 (가)와 (나)를 접한 후에 정책에 대해 찾아보고자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책 판단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 1'은 선거가 어른들의 일이라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자신의 과거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와 (나)의 내용을 토대로 모의 선거에 참여해 보겠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학생 2'는 선거와 정책의 관련성을 보여 주며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가)와 (나)의 내용과 관련지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인 복지 정책의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해 더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 3'은 (가)의 뒷부분에서 언급한 투표할 때의 유의점과 관련하여 매체인 영상 교육 자료를 찾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자신이 알고 있던 참정권의 의미와 관련지어, (가)와 (나)를 접하며 국민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 3'은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던 선거권 행사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가)와 (나)를 접하며 투표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09 매체

본문 165~170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5 ⑤

01 매체 자료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6에 삽입된 지역 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은 지역 생태계의 파괴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 맹꽁이가 환경 지표종으로서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 주기 때문에 맹꽁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맹꽁이가 멸종위기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 #1에서 맹꽁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었다는 정보와 함께 우리 지역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2에서 복원 사업에 성공한 산양을 제시하고 있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3에서 산양 복원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⑤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7에서 맹꽁이 서식지 보전 온라인 서명 운동과 관련된 누리집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7의 자막에서 맹꽁이 울음소리를 다시 듣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므로 산양, 반달가슴곰, 여우의 울음소리를 삽입하기보다는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된 모습이 나타날 때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의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2에서 복원에 성공한 산양의 모습으로는 밝은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건강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5에서 맹꽁이가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슬퍼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8의 화면 설명에서 영상의 '자유로운 배포 허용'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내하는 문구를 자막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 (나)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해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는 맹꽁이 서식지가 줄어든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에서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산양과 맹꽁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맹꽁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를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정보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달리 (나)에서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대해 설명을 하며 매체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학교 소식지의 독자가 점점 줄고 있으며, 소식지 사설에 비해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회 누리집 웹툰을 구독하고 있다는 '소연'의 발언을 통해 ㉯가 ㉮에 비해 많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유리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웹툰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갖는 형식'이라는 '소연'의 발언을 통해, ㉮에 비해 ㉯를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매체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종이로 발간되어서 학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학생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웹툰은 학생들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준수'의 발언을 통해, ㉯는 ㉮와 달리 수용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매체라고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림 위주로 표현하다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준수'의 발언을 통해, ㉮는 ㉯에 비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에 용이한 매체라고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연'의 발언을 통해 ㉮는 글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식이며, ㉯는 그림을 기반으로 글을 덧붙이는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05 정보 구성 언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번과 4번 장면에서 시간 경과를 표현하여 행사 뒷정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행사를 즐긴 시간에 비해 행사 뒷정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번과 4번 장면에서는 한 장면을 사선으로 나누어 행사 뒷정리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모습이 대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② 1번 장면에서 '제10회 동아리 축제'와 '협동과 실천'이라는 주제가 적힌 플래카드를 제시하여 웹툰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2번 장면에서는 행사 시작 전의 깨끗한 모습과 행사가 끝난 후 지저분해진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④ '협동과 실천'이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5번 장면에서는 플래카드와 함께 '마무리까지 함께하'자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수능과 동일한 구성과 난이도,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선배들이 증명한 실전 훈련 효과!

10 매체

본문 171~176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제공된 정보가 사실인지 의견인지에 따라 글자의 굵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글자의 굵기를 달리 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상단에는 제목 및 부제를 통해 전체 자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② (가)의 상단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보도 일시를 정해 주어, 정해진 일시 이후에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한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⑤ (가)의 하단에 자료 제공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고유어 지명으로 (가)에서 언급한 '장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에서 제시한 사례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고유어 지명의 숫자를 11,771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12% 가까운 수치라는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제시한 많이 쓰이는 고유어 지명과 관련된 수치를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도표로 제시하여 시각화하고 있다.

③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가장 긴 고유어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보충 자료 및 지명과 관련된 사진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⑤ (나)의 각 슬라이드에서 인용한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인용한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된 윤리를 준수하고 있다.

03 정보 구성 언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옥낭각씨'의 '각씨'와 '옥낭이라는 각

시'의 '각시'라는 표현이 다르므로,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각씨'가 표준어 '각시'의 지역어임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공된 정보는 전국의 고시된 지명 중 고유어 지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제목을 '전국 고시 지명'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두 번째 슬라이드의 소제목에서는 '많이 쓰이는 고유어 지명'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유어 지명'인 '새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④ 네 번째 슬라이드의 소제목에서는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고유어 지명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한자어 지명의 사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각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 제재가 '고유어 지명'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제목을 '우리나라 한자어, 고유어, 혼합어 지명 이야기'로 수정하는 것은 발표 제재와 관련 없는 '한자어 지명, 혼합어 지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음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문자와 사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뿐, 음성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자료 화면을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보도 내용 중 '앞광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으로 '앞광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작성자가 과거에 게시한 사과 글을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독자들이 게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묵탕 #광고 #협찬'과 같은 주요 검색어를 제시하고 있다.

0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뒷광고' 논란을 설명하며 '대중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 '뒷광고'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제시하였으므로 (나)에서 제품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구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호의적인 댓글 내용에서 상품 광고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구독자가 광고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사진 속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있으므로 간접 광고로 볼 수 있다.

④ 제품을 제공받아 만든 콘텐츠임을 밝히는 것을 '앞광고'라 부르고 있으므로, '앞광고'로 볼 수 있다.

⑤ (나)에 '이번 게시 글은 ~ 업체로부터 제품과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실전보다 더 실전같이! 제대로 어렵게!
상위권 학생을 위한
고난도 특화 프리미엄 모의고사

11 매체

본문 177~184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⑤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진행자'는 '출연자'가 하는 동작을 따라 해 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방송을 시작하는 장면을 촬영한 장소는 방송 내용인 피겨 스케이팅과 관련이 있는 아이스 링크이다.

② '출연자'인 이○○ 코치가 선수 시절 연기에 활용한 음악을 방송 도입부에 제시하여 시청자가 출연자를 추측해 보게 하고 있다.

③ 방송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인 대형 모니터가 촬영 장소에 미리 설치되어 있다.

④ '출연자'의 예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후 '진행자'가 '정말 멋진 연기이지 않나요?'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출연자'가 방송에서 [자료 1]을 제시하면서, 종목에 점프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스케이트화 날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출연자'는 방송에서 [자료 2]를 제시하면서 다른 점프들과 달리 악셀 점프만 전진하면서 점프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악셀 점프가 다른 점프보다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출연자'는 방송에서 [자료 2]를 제시하면서 점프를 부르는 용어가 점프의 회전수와 점프 유형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 '천천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보니'와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연자'는 방송에서 [자료 3]을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이 느린 화면으로 점프 동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출연자'는 방송에서 [자료 3]을 제시하면서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악셀을 회전수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시청자 2'는 '진행자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좀 더 알고 보니 확실히 전보다 경기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라고 '진행자'가 방송 중에 한 말에 대한 공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출연자'가 알려 준 점프에 대한 정보가 관련 프로그램을 볼 때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은 이○○ 코치의 근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진행자'가 '출연자'의 근황이 어떤지 알려 주어서 방송이 유익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③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을 뿐, 방송에 나온 영상에 대해서는 유익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시청자 1'은 '출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방송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이모티콘(^^)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 '시청자 2'도 이모티콘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출연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⑤ '시청자 2'는 방송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고 있으나, '시청자 3'은 방송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고 있지 않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기자'는 어린 살오징어 불법 포획을 단속하는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가 보도의 소재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② '진행자'는 보도의 소재를 처음에는 총알 오징어라고 지칭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린 살오징어라고 지칭하고 있다.

④ '기자'가 보도의 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⑤ '관계자'가 보도 소재의 실물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주며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5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카드 뉴스의 네 번째 칸에는 수학 기호가 아니라 '더하기', '빼

기'와 같은 수학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용어가 (가)에서 기자가 말한 캠페인 제목인 '치어럽'이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제시하는 데에 쓰이고 있지도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뉴스의 첫 번째 칸에는 기자가 (가)에서 밝힌 잘못된 명칭과 적절한 명칭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② 카드 뉴스의 두 번째 칸에는 관계자가 (가)에서 밝힌 살오징어 어획량 변화가 막대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③ 카드 뉴스의 세 번째 칸에는 (가)에서 기자가 사용한 용어인 '금지 체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④ 카드 뉴스의 세 번째 칸에는 관계자가 (가)에서 알려 준, 잡을 수 있는 살오징어의 크기 기준인 15cm가 살오징어의 어느 부위에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수능 감(感)잡기

감을 잡으면 수능이 두렵지 않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12 매체

본문 185~191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1 매체 자료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가)를 생산한 기자의 다른 기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정보 생산자가 만든 다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댓글에서 기사의 수정을 위한 정보 수용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수업 시간 발표용 슬라이드이므로 정보 수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료에 담긴 정보의 제시 순서를 조절할 수는 없다.
④ (가)는 뉴스의 상단에 해당 뉴스가 다섯 개의 분야 중에 사회 분야에 속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역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발표 자료가 '우리 지역의 사회 문제'라는 분야를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정보 수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언어적 표현과 이모티콘을 통해 드러나는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다룬 '차박'과 관련된 공영 주차장 문제를 직접 조사해 본 결과를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 이미지 자료와 문자를 통해 제시해 주고 있으나, 조사 결과를 수치화해서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밝힌 것처럼 '차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박용 텐트 출원 건수 관련 통계를 그래프 형태로 (나)에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 나온 문제 상황 외에 (나)에 새롭게 추가된 주차장 불법 취사 문제를, (가)에 나온 문제 상황인 장기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다룬 슬라이드들 사이에 배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글로만 제시된 쓰레기 문제를 (나)에서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시청 관계자'가 행정적 규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한 내용과 댓글에 주차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강력한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고려하여 (나)에서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하자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말풍선을 추가하여 바다랑 마을에 대한 설명을 담고는 있으나 해당 내용이 초안에 담긴 바다랑 마을에 대한 설명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아니므로 네 번째 수정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점검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첫 번째 수정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검 결과는 적절하다.

②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시된 통계 자료의 출처가 특허청임을 드러내어 발표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므로 두 번째 수정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검 결과는 적절하다.

③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차박'이라는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므로 세 번째 수정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검 결과는 적절하다.

⑤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차박족'이 좋아하는 곳의 조건이 표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다섯 번째 수정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검 결과는 적절하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박 감독'의 발화 중에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이들의 반응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의 첫 번째 발화를 통해 라디오와 누리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방송 내용을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김 배우'의 세 번째 발화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는 이들의 숫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최 배우'의 첫 번째 발화를 통해서 방송이 진행되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방송 진행자와 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진행자'의 마지막 발화를 통해 방송 중간에 광고가 송출된다는 특성을 알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박 감독'은 방송에서 주인공인 운영과 김 진사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연출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작은 숲'과 '하늘색'이 이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플랜더스'는 '김 배우'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작은 숲'의 의견에 댓글을 달아서 공감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② '1987'은 '김 배우'가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영화의 결말에 대해 소설의 결말과는 달랐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복순이'는 진행자가 봤다고 언급한 영화의 예고편을 '작은 숲'이 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공해 주고 있다.

⑤ 고전 소설 「운영전」이 영화의 원작이라는 '박 감독'의 말을 듣고 나서 '복순이'는 「운영전」을 사서 읽고, '1987'은 소설 줄거리를 찾아보는 행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01 통합

본문 192~195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②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문가'는 두 번째 발화에서, 의궤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궤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② '전문가'는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 여섯 번째 발화에서, 의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의궤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④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의 일부 및 전체, 일부를 확대한 그림 등 시청자가 의궤를 볼 수 있도록 의궤에 관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⑤ '전문가'는 아홉 번째 발화에서,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프랑스의 의궤 약탈과 반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전문가'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화면 1]을 설명하면서 '내부가 보이는 왕의 가마'라고 하였으며, '전문가'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왕비의 가마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화면 1]의 가마를 보면 사방을 열어 놓아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왕의 가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왕비의 가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화면 2]는 반차도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하여 세부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③ [화면 1]과 [화면 2]에 나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깔끔한 채색은 문화재로서의 의궤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④ [화면 1]과 [화면 2]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은 신분에 따라 달라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⑤ [화면 1]과 [화면 2]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들을 묘사함으로써 딱딱해지기 쉬운 행렬의 구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전문가'의 여섯 번째 발화와 열 번째 발화를 보면, 의궤에 자세한 기록을 담은 이유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행사와 관련된 각종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궤의 내용은 철저하게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므로, 실제 행사와 차이는 있지만 화려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써 당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의궤에는 다른 나라의 행사와 비교한 내용이 없으므로, 다른 나라의 행사와 비교하여 행사의 세부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당시의 국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의궤는 행사 전에 기록되었으므로, 행사가 끝난 후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므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지는 못하였으나 행사의 내용을 그림으로 담은 자료로서 후대에 행사 기록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4 담화의 특성과 국어 생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지시 대명사 '여기'는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에서처럼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경우에 쓰인다. 또한 '아무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것,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에서처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쓰인다. 맥락으로 보아 ㉡의 '여기'는 의궤 중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왕의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무엇인지요'에는 의문형 어미 '-ㄴ지'가 결합되어 있다. '진행자'는 의궤를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의미를 '전문가'에게 묻고 있다. 이 어미에 결합되어 있는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따라서'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 '전문가'는 반차도의 기능을 설명한 후 ㉢에서와 같이 그 기능적 성격을 오늘날의 도상 연습에 연결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에서 '이런'은 반차도에 나타난 인물들은 신분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복식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⑤ '~(으)로 보입니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쓰면 능동 표현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에서 '전문가'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덧붙이면서 피동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의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능개념

EBS 대표강사들과 함께 하는
수능의 개념을 잡아주는 필수 기본서

02 통합

본문 196~199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③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C]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며 글쓰기 효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학생 2'는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해소 방안을 주제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와 같이 청중을 고려하여 '학생 1'의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 '학생 2'는 'https://www.○○○.com'과 같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1'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책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C]에서 '학생 1'은 '△△△.hwp'와 같이 첨부 파일을 활용하여 자신이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의 '학생 3'의 마지막 발화와 (나)를 보면, '카드 1'~'카드 4'는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실태, 글쓰기의 효과와 관련 자료, 글을 쓰는 방법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를 보면, 중고등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정도를 밝히기 위해 '카드 1'에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와 (나)를 보면, 글쓰기라는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카드 2'에서 스트레스 완화, 삶의 질 향상 등의 글쓰기 효과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를 보면, 글쓰기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카드 3'에서 글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와 (나)를 보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학

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4'에서 글쓰기의 방법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수정된 '카드 4'를 보면, 말풍선과 그림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글쓰기의 방법을 항목화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정 전 '카드 4'를 보면, 수정 전에도 지속적인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수정된 '카드 4'를 보면, 학생들이 마주 보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으나,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④ 수정된 '카드 4'를 보면, 말풍선으로 '글쓰기는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글쓰기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수정된 '카드 4'를 보면, 학생들이 마주 보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업하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지도 않다.

04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장 종결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 '내용인데?'에서 '-ㄴ데'는 뒤 절에서 어떤 설명, 물음, 요구, 제안 등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인 연결 어미로 볼 수 없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이때 '-ㄴ데'는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만들기인데'에서 '-ㄴ데'는 뒤 절에서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를 정할지 묻기 위하여 그와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이고 있다.

② ㉡의 '하셨는데'에서 '-는데'는 뒤 절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그와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이고 있다.

④ ㉣의 '나오는데'에서 '-는데'는 뒤 절에서 설문 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와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이고 있다.

⑤ ㉤의 '있는데'에서 '-는데'는 뒤 절에서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와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이고 있다.

03 통합

본문 200~203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②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장면 1]과 [장면 6]을 보면, 강연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 모두 배경 음악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면 2]를 보면, 미술관의 전경과 내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장면 4]와 [장면 5]를 보면, 시청자가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화면에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장면 1]을 보면, 프로그램명과 강연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 자막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장면 3]을 보면, 미술관의 여러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작품이 하나하나 지나가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장면 4]를 보면, ㉠은 모네가 자신의 정원과 연못을 가꾸며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장면 5]를 보면, ㉡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물의 형태를 최소화하고 점, 선, 면의 특징을 이용한 추상 미술 작품으로,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전통적인 미술의 가치와 개념을 전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 선, 면의 특징을 이용하여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그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장면 4]에서 강연자는 ㉠을 천천히 감상하기를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과 달리 ㉡은 그림을 천천히 감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장면 4]와 [장면 5]를 보면, ㉠은 인상주의 작품이며 ㉡은 추상 미술 작품이다. 따라서 ㉠과 ㉡이 모두 추상 미술 작품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장면 4]를 보면, ㉠은 고전주의 화가들이 유화를 다룬 것처럼 천천히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고전주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방식처럼 단숨에 완성한 작품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시청자 5'는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고 있을 뿐,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방송 내용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은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방송 내용의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시청자 2'는 몬드리안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 강연자 개인의 생각인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인지 궁금해하였으므로, 작품에 대한 설명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인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시청자 3'은 최근 뉴욕 현대 미술관의 소장 작품이 더 늘어났는지를 궁금해하였으므로,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시청자 4'는 방송에서 소개된 그림들과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본 작품을 관련지어 감상하였으므로, 방송에서 소개된 작품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지어 감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용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보고 마는'에서의 '말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의 의미를 지니는 본용언으로 보조 용언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정리해 두어'에서 '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자료 정리가 끝나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낸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의 '멈춰 버린'에서의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시간이 멈추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의 '소개해 드린'에서의 '드리다'는 보조 동사 '주다'의 높임말로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작품 소개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의 '만나 보아야'에서의 '보다'는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눈앞에 대하는 경험을 할 만할 다른 작품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4 통합

본문 204~207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전반적으로 리포터가 진행자의 요청에 따르고 있으나 앱의 개발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가 가족이 아파서 어떤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앱이 개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진행자가 '거기에 추천된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등과 같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리포터에게 요청하였다.

④ 리포터는 앱의 각 메뉴를 하나씩 작동해서 시범을 보임으로써 앱의 메뉴 구성 및 이용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리포터는 특정 정보를 설명하면서 앱의 일부 메뉴를 실행한 결과를 화면에 확대해 보여 줌으로써 앱의 특정 기능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모두 앱 기능의 장단점을 방송에서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시청자 1'은 '우리 동네 병·의원' 메뉴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편리함만 강조하고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였다. 또한 '시청자 3'은 환자 몰림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방송에서 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단점도 언급해 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모두 앱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은 앱에서 추천한 의사 선생님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와 관련된 통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과 관련된 설문 조사의 표본 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② '시청자 2'는 리포터가 추천해 준 앱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증상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료과를 찾는 것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말하였다. 앱의 유용성을 질환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아니다.
③ '시청자 3'은 리포터가 제시한 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그 앱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④ '시청자 1'과 '시청자 2' 모두 리포터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 것은 아니다.

03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병원 생활 도우미' 메뉴에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병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이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정한 접근 인증 절차를 거치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용자가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사진과 글로 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 양식으로 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에서 검색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는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얻은 정보를 다른 매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에서는 수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의원이 지도에 표시된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한다.
④ ⓑ에서 수용자가 찾은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앱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앱을 이용하면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앱의 기능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만들어졌기'에서 '-어지-'를 활용하였다. 이는 '-어지다' 피동이 실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앱이 개발된 사실을 전달하며 앱을 만든 주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질환별로'에서 '-별'을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질환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주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② '의사를'에서 '를'을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질환에 따라 연결되는 의사가 달라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주는'에서 '-는'을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앱의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에도 사용자에게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만들어졌기'에서 '-기'를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의 말을 직접 드러내어 성과에 초점을 두게 하고 있지는 않다.

05 통합 본문 208~21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는 '○○식품 대표인 김△△ 씨'의 말을 인용하였고, (나)는 '▽▽ 경영 대학 박◇◇ 교수'의 말을 '카드 2'에서 인용하였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말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 주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신문 기사이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작성자의 평가가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전달되는 객관적 정보 그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한다.
② (가)는 학교 신문으로 수용자의 범위가 학교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용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정보의 유용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나)도 (가)와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장을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설문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작성자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므로 작성자의 설문 조사 과정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ESG 경영의 개념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것이 (나)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카드 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카드 1'의 내용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1'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ESG의 핵심 요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기 위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이미지를 사용해 표현하였다.
③ '카드 3'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ESG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구체화하기 위해, 'ESG 경영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④ '카드 4'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ESG 경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부각하기 위해, '우리들도 응원할게요'라는 문구와 교복을 입

은 학생들이 응원하는 모습의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표현하였다.
⑤ '카드 1~3'은 학생의 질문 형식으로 제목을 달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03 매체 자료의 생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카드를 추가하는 이유는 ESG 경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제작된 (나)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ESG 경영이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카드 B'를 활용하면 기업이 ESG 경영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ESG 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요소를 제시한 '카드 A'는, ESG 경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카드 뉴스 보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카드 A'는 ESG 경영을 평가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환경 이슈에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이 평가 요소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ESG 경영이 기후 변화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를 밝혀 주기는 어렵다. 또한 제시된 카드 뉴스 보완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카드 B'는 ESG 경영이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이유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업의 가치 평가와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이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아니다.
⑤ (나)에서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카드 B'를 활용하여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카드 뉴스 보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04 담화의 특성과 국어 생활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조사 '나'는 '몇 시나 되었을까?'에서 보듯이 수량이나 정도를 어림잡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에서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이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와 '최근'의 투자 기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 '이렇게'는 '이러하게'의 준말이고, '이러하게'는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의 활용형이다. 현재의 맥락에서 '이렇게'는 앞서 말한 내용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③ '있다'가 보조 동사로 쓰일 때는 '-고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⑤ '원서 교부 및 접수'에서처럼 부사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쓴다. ㉤에서는 '재활용 방향제'에 이어진 '개발'과 '제작'을 연결하고 있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06 통합

본문 212~215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1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민서'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영상을 공유하여 회의 참여자가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웹툰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미리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웹툰 요청자인 교장 선생님의 제안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회의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민서'는 '주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오디오의 음량을 즉각 조절하였다.

③ 온라인으로 진행된 화상 회의로, 회의 참여자들이 한 공간에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보며 회의를 하고 있다.

⑤ '발표하기'라는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 참여자들이 같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02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2'와 '#6'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과 여럿이 함께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대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가)에서 논의된 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감사 전달 캠페인'의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하트 모양의 손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② 독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웹툰에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웹툰의 일부 내용을 독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말풍선을 사용해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소방대원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학생들의 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⑤ '#1'과 '#2'에서 소방대원의 심정을 표현한 문장 중 '두려움', '잠시', '가끔', '힘들 때' 등과 같은 단어는 글꼴을 다르게 하여 표현하였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댓글'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웹툰을 읽은 독자와 웹툰 제작자 사이에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댓글에 추가 댓글을 달아서 연속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ㅎㅎ', 'ㅋㅋ'과 같이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가 대화에 활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독자에게 다량의 정보가 압축적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다.

② 독자와 웹툰 제작자가 나누는 대화는 댓글 창에 노출되므로, 대화 과정을 통해 대화 당사자만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교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독자와 웹툰 제작자 사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제가 웹툰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독자와 웹툰 제작자 사이의 의사소통은 문자 언어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04 담화의 특성과 국어 생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조 형용사 '듯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담화 맥락으로 보아 ㉢에서 '주원'은 웹툰의 장면 구성에 대한 '민서'의 의견에 대해, '그래'라는 말로 동의를 하고 있으며 '좋을 듯해'로 자신의 긍정적인 짐작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고생하신'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되어 있다.

② ㉡에서 '-ㄹ래'는 상대편의 의사를 묻는 데 쓰인 종결 어미이다. '주원'은 이 어미를 활용하여 '민서'에게 오디오 볼륨을 높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④ '-되'는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에서는 자막 표현에서 '핵심 단어가 강조되도록' 하는 것을 세부 사항으로 덧붙이고 있다.

⑤ 사전적으로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에서 '주원'은 '그런데'를 활용하여 '민서'의 제안을 좋게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전 학습 1회 본문 218~229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③	10 ②
11 ③				

01 음운의 체계와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의 예로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과 ㉡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음운의 전체 개수는 9개이다.

② ㉡에서는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의 음운의 전체 개수는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③ ㉢에서는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 'ㅍ'이 'ㅂ'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 말 평파열음화)이 일어난다.

⑤ ㉠에서는 'ㄷ'이 'ㄸ'으로, ㉢에서는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공통적으로 경음화(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02 단어 배열법에 따른 단어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접칼'(접- + 칼), '덮밥'(덮- + 밥), '꺾쇠'(꺾- + 쇠)는 모두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접미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② 접두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④ 용언의 관형사형이 아닌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⑤ '접-', '덮-', '꺾-'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인 비자립적 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품사와 단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여기에 큰 인형이 있다.'에서 '큰'이 뒤에 오는 '인형'을 수식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큰'은 형용사 '크다'의 관형사형이므로, 수식언이면서 관형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큰'은 용언이면서 형용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약이 쓰다.'에서 '쓰다'는 '쓰고', '쓰니'를 볼 때 활용하면 형태가 변한다. 이로 보아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이다.

② '언니가 웃다.'에서 '웃다'는 서술의 기능을 하면서 동작을 나타낸다. 이로 보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이고,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동사이다.

③ '형이 너를 보았다.'에서 '이'와 '를'은 모두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이로 보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관계언이다.

⑤ '앗! 뜨거워.'에서 '앗'은 독립적으로 쓰이면서 놀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로 보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독립언이고,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감탄사이다.

04 문장 종결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 ㉣: 아랫배가 아픈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가 아파요?'라고 의사가 말한 것에 환자는 '예, 맞아요.'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어제저녁에 식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저녁에 식사했어요?'라고 의사가 말한 것에 환자는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 보아 ㉠, ㉣은 '예', '아니요'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 ㉢: 아랫배가 아픈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아랫배가 아픈 건가요?'라고 환자가 말한 것에 의사는 '글쎄요.'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아랫배가 언제부터 아팠지요?'라고 의사가 말한 것에 환자는 '오늘 아침부터요.'라고 답하였다. 이로 보아 ㉡, ㉢은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 어제저녁에 특별한 것을 먹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뭐 특별한 걸 먹었겠습니까?'라고 환자가 말하였다. 이는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05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ᄯᅳ리 너희 ᄌᆞᆼ가'에서 '가'는 체언 뒤에 바로 붙은 의문 보조사이다. 이로 보아 ㉮는 판정 의문문이다. 그리고 '므슴 마ᄅᆞᆯ 니ᄅᆞᄂᆞ뇨'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 '-뇨'가 실현되어 있다. 이로 보아 ㉯는 설명 의문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의문 보조사가 실현되어 있다.
② ㉮는 판정 의문문이다.
③ ㉯는 설명 의문문이다. 그리고 ㉯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실현되어 있다.
⑤ ㉯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실현되어 있다.

06 매체 언어의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우리의 성은 다르지만 우리의 이름은 같습니다.'에서 '다르다'와 '같다'는 반의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남자 직업, 여자 직업과 같이 직업에 대한 성(性)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부정 부사는 용언의 앞에 놓여 그 내용을 부정하는 부사이다. 이를 활용하여 성차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②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성차별을 일삼는 주체를 숨기고 있지 않다.
④ 인용 표현은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를 활용하여 성(性)과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 안은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07 의사소통으로서의 매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대나무 칫솔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 누리집에 링크를 남긴다는 것은 정보 수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 수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것은 라디오를 시청하고 청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특별히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취자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른 시청자들을 위해 대나무 칫솔 사진을 올려 달라고 했으므로, ㉠은 인터넷으로 접속한 시청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므로, ㉡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취자를 위해 시청자에게 제시했던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진행자'는 대나무 자재가 플라스틱보다 비싸다고 했다. 그런데 시청자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조금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바로잡겠다고 했으므로, ㉢은 인터넷으로 접속한 시청자로부터 정보를 수용하여 자신이 앞서 잘못 제공한 정보를 수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취자들이 방송 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누리집에 게시해 놓는다고 했으므로, ㉣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취자가 특정 정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8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김 대표'가 언급한 누리집은 '김 대표' 회사 누리집이다. 그런데 (나)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나 QR 코드는 □□ 고등학교 동아리 가입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가)에서 '김 대표'가 제시한 회사 누리집 주소와 관련하여, (나)에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 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소셜 임팩트의 소재는 다양하다는 '김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나)에서는 이를 빈자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그림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③ (가)에서 전문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동아리가 소셜 임팩트 기업의 창업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진행자'의 발언이 있었다. (나)에서는 '□□ 고등학교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라고 하여 소셜 임팩트 기업의 창업 주체자인 이 동아리가 정보 제공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김 대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빈자를 돕는 소셜 임팩트 기업을 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나)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더하기표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빈자를 돕는다는 것을 손으로 떠받치는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⑤ (가)에서 소셜 임팩트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면 좋겠다는 '진행자'의 발언이 있었다. (나)에서는 '우리의 소셜 임팩트 기업을 함께 만들어요. / □□고 여러분!'이라고 하여, 창업에 동참할 대상자를 제시함으로써 정보 수용자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09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언급된 소셜 임팩트가 ESG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

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용을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내용의 충분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내용의 공평하고 올바름을 다루는 내용의 공정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환경이라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나무 칫솔 기업에 대해 방송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요구와 잘 맞는다고 했으므로, 프로그램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② 소셜 임팩트는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 개념이라고 했으므로,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대나무 칫솔 기업의 사회적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④ 대나무 칫솔의 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져 소비자들이 이 칫솔을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할 만하다고 했으므로, 소비자들의 대나무 칫솔 사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폐기물 부담금이 계속해서 더 커져 기업이 플라스틱 칫솔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므로, 플라스틱 칫솔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지속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1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0××. 04. 10. 06:17:16 최초 작성 / 20××. 04. 11. 08:11:16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 기사가 언제 최초에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사가 언제 수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기사 내용이 실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SNS에 공유'를 통해, 수용자가 기사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관련 기사]'를 통해, 수용자는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선택하여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본문 듣기'를 통해, 수용자는 문자로 되어 있는, 즉 시각적으로 제시된 기사를 귀로 듣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

⑤ '👍 좋아요(213) 👎 싫어요(3)'을 통해, 수용자는 이 기사에 대해 다른 수용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1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다른 지역의 복합 문화 센터의 개수보다 동남권 지역이 복합 문화 센터의 개수가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기사 1문단에서 동남권의 복합 문화 센터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는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시 시민에게 주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기사 마지막 문단에서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지역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에 따르면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여러 방면에서 ○○시 시민들의 삶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B]가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이 특정 지역에 가져다줄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가 동남권 지역의 복합 문화 센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A]는 지역 간 분리되어 있는 복합 문화 센터를 연결할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에 따르면 각 지역의 복합 문화 센터 개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A]가 지역 간 복합 문화 센터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는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시 시민에게 주는 효과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B]가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에 대해 모든 시민이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B]에 따르면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여러 방면에서 ○○시 시민들의 삶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B]가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는 동남권 지역의 복합 문화 센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A]는 도시 전체에서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B]에 따르면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시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B]가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가 다른 지역의 복합 문화 센터의 개수보다 동남권 지역이 복합 문화 센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A]는 특정 지역에서 복합 문화 센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230~239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⑤	07 ②	08 ③	09 ③	10 ④
11 ③				

01 탈락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보기〉에 의하면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그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음운 현상이다. ②의 경우 겹받침 'ㄶ'의 'ㅎ'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지'의 'ㅈ'과 만나 거센소리 'ㅊ'으로 축약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없-'에 '-고'가 결합하면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겹받침 'ㅄ'에서 'ㅅ'이 탈락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업:꼬]로 발음된다.

③ '얹-'에 '-는'이 결합하면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겹받침 'ㄵ'에서 'ㅈ'이 탈락하게 된다.

④ '삶'에 '만'이 결합하면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겹받침 'ㄻ'에서 'ㄹ'이 탈락하게 된다.

⑤ '끓-'에 '-는'이 결합하면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겹받침 'ㄶ'에서 'ㅎ'이 탈락하게 된다. 이후 유음화가 일어나 [끌른]으로 발음된다.

02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붉히다'는 형용사 어간 '붉-'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므로 ㉠과 ㉡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섞이다'는 '섞-'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② '떠밀리다'는 '떠밀-'에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④ '돋우다'는 '돋-'에 접미사 '-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로, 품사에는 변화가 없다.

⑤ '달리기'는 용언의 어간 '달리-'에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03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ㄴ은 동일한 형식을 가진 두 절이 구조적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지금은 비가 오-'와 '내일은 눈이 오-'가 '부사어+주어+서술어'의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절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지금은'에 의해 제약을 받고 후행절의 시제는 '내일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ㄴ의 '올'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ㄹ'은 후행절에만 걸려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은 선행절 '꽃봉오리가 피-'와 후행절 '새싹이 돋-'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이어져 있으며, ㄴ은 선행절 '지금은 비가 오-'와 후행절 '내일은 눈이 오-'가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이어져 있다.

② ㄱ은 선행절 '꽃봉오리가 피-'와 후행절 '새싹이 돋-'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사어 '남녘에는'은 이 두 절 모두에 걸려 있다.

③ ㄱ은 선행절 '꽃봉오리가 피-'와 후행절 '새싹이 돋-'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후행절의 '돋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선행절에도 걸려 있다.

④ ㄴ에서 선행절 '지금은 비가 오-'와 후행절 '내일은 눈이 오-'는 동일한 형식(부사어+주어+서술어)을 가지고 있다.

04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외에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으)로'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에서 서술어 '부탁했다'는 주어 외에도 '…에/에게'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요구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에서 서술어 '빛났다'는 주어만을 요구한다.

ⓑ에서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 외에도 '…이/가'에 해당하는 보어를 요구한다.

ⓔ에서 서술어 '유명했다'는 주어 외에도 '…(으)로'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에서 서술어 '사라졌다'는 주어 외에도 '…(으)로'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문맥을 고려할 때 ㉠에는 용언의 어간 'ᄡᅳ-'가 명사형 전성 어

미 '-움'과 결합한 형태인 '붂'에, 조사 '에'가 결합하여 이어 적은(연철된) '뿌메'가 적절하다. ㉡에는 어근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이어 적은(연철된) '여름'이 적절하다.

06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진행자는 △△ 신문 기사에서 소개된 앱을 화면에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 신문의 산불 관련 기사의 표제를 소개하며 관련 내용을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있을 뿐,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전문가는 □□ 신문에 나온 산림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의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지만, 이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일 뿐 진행자의 설명을 보충하고 있지는 않다.

③ ○○ 신문에서는 산불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 신문에서는 산림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전문가는 두 신문을 통해 각기 다른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④ 진행자가 △△ 신문의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 신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07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는 '산불 위험도' 메뉴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살펴볼 수는 있으나 생산자가 제공하는 매체 자료를 수용자가 수정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첫 화면'으로, '산불 위험도' 메뉴가 표시된 부분에 수용자가 있는 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표시된다. 그러므로 수용자가 앱을 이용하는 위치와 시각에 따라 정보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③ ⓒ는 '산불 감시' 메뉴로,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지역의 정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는 '산불 예방 및 신고' 메뉴로, 이를 통해 산불 관련 신고처 및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수용자가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알려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는 '이용자 게시판' 메뉴로, 이 메뉴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일,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일, 자신이 직접 글을 올리는 일 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매체 자료의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8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시청자 2'는 산불 발생 지역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앱을 통해 산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시청자 3'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즉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면서 들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과 '시청자 4'는 모두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산불 대응 정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점검하고 있지 않다.

② '시청자 1'과 '시청자 5'는 산불 예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사실인지 점검하지 않았다.

④ '시청자 2'와 '시청자 4'는 산불 감시 및 대응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중 수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한 것은 아니다.

⑤ '시청자 3'과 '시청자 5'의 말은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09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조명을 켜거나, TV를 켜거나, 휴대 전화를 켜 놓는 등 빛에 노출된 채 잠을 자면, 비만,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내용을 악마가 접근하는 비유적인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불을 켠 채로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호르몬의 작용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② 불을 켜고 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에 관해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질병 발병률을 드러내기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진한 글씨가 드러난 부분들은 불을 켜고 잠을 잤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조절하여 드러내지는 않았다.
⑤ 실험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명의 밝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10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5문단에서 전자 기기도 조명과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나)의 #3에서는 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다루고 있지만 전자 기기로 인한 영향이 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보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좋지 않은 수면 환경으로 언급된 요소들을 (나)에서는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보여 주며 내레이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보는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된다.
② (가)의 1문단에서는 불을 켜고 자는 것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나)의 #2에서는 어린이 성장이 방해받는 과정을 인과 관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가)에서 2~4문단에 나누어 제시한 내용을 (나)의 #3에서는 한 화면에 구조화하여 담아냄으로써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에서 설명한 잠을 잘 때 지켜야 할 점들을 (나)의 #4에서 항목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용자가 정보를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담화의 특성과 국어 생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 '-거나'는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거나 아버지가 오신다.'에서 보듯이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즉 ㉢에서 '-거나'는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중 어느 것이든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밝은 수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제로 쓴 글이다. ㉠은 의문형 종결 어미 '-ㄹ까'가 결합된 문장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화제를 고려할 때, ㉡은 불을 켜고 잠을 잤을 때 뇌 기능의 저하가 올 수 있음을 설명하는 문단의 첫머리이다.
④ '-라면'은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이 어미와 부사 '꼭'을 사용하여 조명을 불가피하게 켜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에서 '두다'는 동사 뒤에서 '-어 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01 (1) (가)는 (나)에 비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고 유통 범위도 좁다.
(2) (가)는 (나)와 달리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제공하기가 어렵다.
(3) (가)는 (나)와 달리 다른 매체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매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상호 연결성이 약하다.

02 [A]: 영상 [B]: 선호, 공유, 저장 [C]: 연결 [D]: 문자, 수용자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❶ 음운

01

	최소 대립쌍이 되는 이유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음운
(1)	초성 'ㅈ'과 'ㅉ'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ㅈ'과 'ㅉ'
(2)	중성 'ㅏ'와 'ㅗ'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ㅏ'와 'ㅗ'
(3)	종성 'ㅂ'과 'ㄱ'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ㅂ'과 'ㄱ'

02

	조음 위치가 바뀜.	조음 방법이 바뀜.
(1)	아니요	예
(2)	예	예
(3)	아니요	예

03 홑이불[혼니불], 짓밟히다[짇빨피다]

국어의 탐구와 활용 ❷ 단어

01 (1)

형태소 단위	가을, 하늘, 에, 검-, -은, 비, 구름, 이, 잔뜩, 까-, -었-, -다

(2)

자립 형태소	ⓐ, ⓓ	실질 형태소	ⓐ, ⓒ, ⓓ
의존 형태소	ⓑ, ⓒ, ⓔ	형식 형태소	ⓑ, ⓔ

02

	직접 구성 요소 분석	합성어/파생어 판단
(1)	어근 '논'과 어근 '밭'으로 분석됨.	합성어
(2)	접사 '헛-'과 어근 '기침'으로 분석됨.	파생어
(3)	어근 '웃-'과 접사 '-음'으로 분석됨.	파생어
(4)	어근 '덮-'과 어근 '밥'으로 분석됨.	합성어

03 (1) garak (2) gulbap (3) Ulleungdo (4) Wolgot

국어의 탐구와 활용 ❸ 문장

01 (1) 명사가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다. (2) 동사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고, 조사와의 결합 없이 목적어로 쓰였다.
(3) 수사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4)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보어로 쓰였다.

02

문장	안긴절의 종류	안긴절의 기능
㉠	서술절	서술어의 기능
㉡	부사절	부사어의 기능
㉢	관형사절	관형어의 기능
㉣	명사절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

03 ㉠: 객체를 높이는 용언 '모시다' 사용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사용 ㉢: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ㄹ' 사용 ㉣: 하셨어

국어의 탐구와 활용 ❹ 담화/국어사

01

㉠	㉡	㉢	㉣
수진, 민지	수진, 가은	수진, 가은	수진

02

㉠	아슙고, 어드븐
㉡	ᄠᅳ들
㉢	수픐, 부텻
㉣	길히, 길헤

03

제1단계 변화의 사례	제2단계 변화의 사례
ⓐ, ⓒ, ⓕ	ⓑ, ⓔ

3강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01 복합 양식성 02 카메라 03 창의적 04 ○, ○, ○, ×, ○, ○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01 ㄷ, ㄹ, ㅁ

02 ㉠을 해결하기 위해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광고성 글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게시판 상단에 공지하였다.

2부 적용 학습

언어	01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③
	02	01 ② 02 ④ 03 ① 04 ② 05 ② 06 ⑤
	03	01 ③ 02 ⑤ 03 ③ 04 ① 05 ③ 06 ②
	04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5	01 ② 02 ②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6	01 ⑤ 02 ⑤ 03 ① 04 ③ 05 ⑤ 06 ④
	07	01 ④ 02 ② 03 ② 04 ④ 05 ② 06 ③
	08	01 ①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9	01 ⑤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①
	10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①
	11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④
	12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④
	13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③
	14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②
	15	01 ① 02 ④ 03 ④ 04 ④ 05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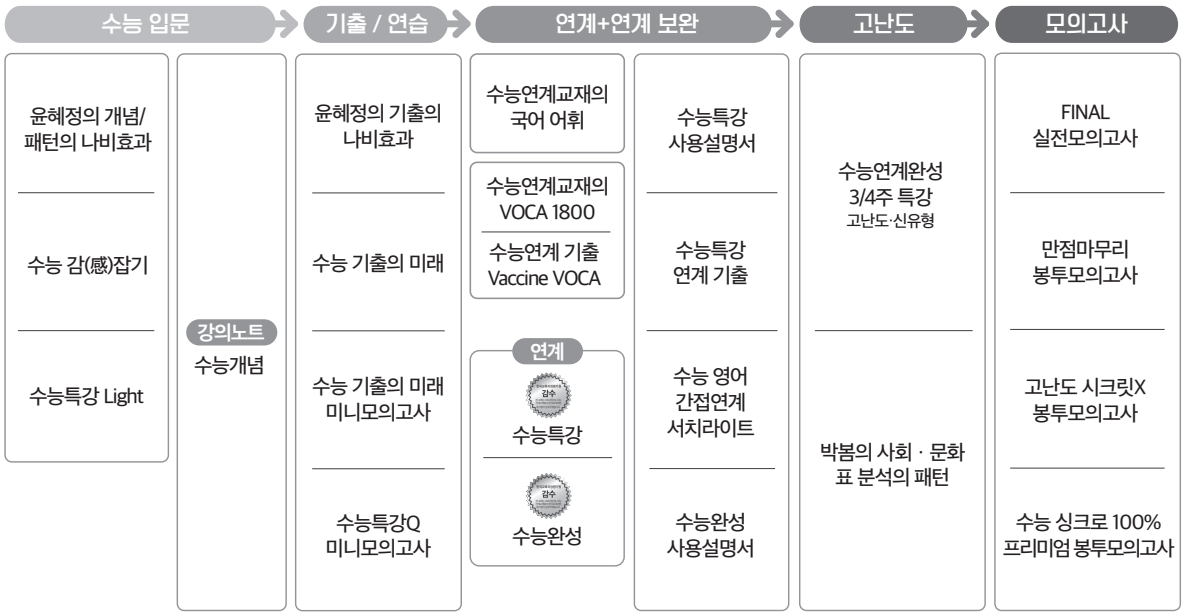
통합	01	01 ③ 02 ① 03 ③ 04 ②
	02	01 ⑤ 02 ⑤ 03 ② 04 ③
	03	01 ⑤ 02 ① 03 ⑤ 04 ②
	04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6	01 ④ 02 ④ 03 ④ 04 ③

매체	01	01 ②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2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①
	03	01 ③ 02 ③ 03 ④ 04 ① 05 ⑤
	04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①
	05	01 ④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6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7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8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9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5 ⑤
	10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③
	11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⑤
	12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③ 10 ② 11 ③
2회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⑤ 07 ② 08 ③ 09 ③ 10 ④ 11 ③

고2~N수 수능 집중 로드맵



구분	시리즈명	특징	수준	영역
수능 입문	윤혜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국어 개념/패턴 학습		국어
	수능 감(感) 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국/영
	수능개념	EBSi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전 영역
기출/연습	윤혜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전 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부담없는 실전 훈련, 고품질 기출 미니모의고사		국/수/영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품격 미니모의고사		전 영역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자료·문항 분석		국/영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국/영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국/영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만 모아 구성한 간접연계 대비 교재		영어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 지문과 문항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서		국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영어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수능-EBS 연계 및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영어
고난도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킬러 문항 대비서		국/수/영/과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사회탐구
모의고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동일 난도의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전 영역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제대로 어려운 최고난도 모의고사		국/수/영
	수능 싱크로 100% 프리미엄 봉투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만나는, 수능과 가장 가까운 고품격 프리미엄 모의고사		국/수/영

MEMO